

駐韓美軍의 役割 變更에 關한 小考

(駐韓美軍 減縮을 中心으로)



'93年度 海軍大學 學生將校

少領 崔 今 植

摘 要

駐韓美軍은 半世紀 동안의 冷戰的 對決構造下에서 對北 聯合抑制力의 主軸으로서 韓半島 安保는 勿論 地域安定의 維持에도 크게 寄與해 왔다. 그러나 最近 國際安保 環境의 變化와 함께 美國의 貿易 및 財政赤字의 累增, 그리고 韓國의 經濟 및 軍事 力의 伸張 등 對內外的 政治, 經濟, 安保環境의 變化는 美 議會內 “駐韓美軍 減縮 論”으로 이어져 結局 美國의 東아시아 및 太平洋 地域 駐屯軍 減縮計劃인 “년.워너 修正案”이 1989年 11월에 美 議會를 通過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美 行政府는 駐韓美軍의 任務, 配置, 部隊構造 등에 대한 再評價를 實施하여 駐韓美軍의 단계적 減縮 및 役割調整 計劃을 立案하였으며, 이것은 1990年 2月の 韓·美 國防長官 會談에서 最初 協議를 거쳐 그해 4월에 “동 아시아 戰略構 想”으로 發展되어 現在 施行 中이다.

따라서 本 論文의 研究目的은 韓國戰爭以後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여 왔던 韓·美 聯合防衛가 時代狀況의 環境變化에 따라 駐韓美軍의 將來와 役割變更을 要求받고 있는 現時點에 있어서 駐韓美軍의 役割에 대하여 深層的으로 分析해 봄으

* 해군 제2사관학교 졸업, 해병여단 중대장 및 사단 운용과장, 해군대학 졸업, 해병연 대 작전 주임장교(現)

로써 駐韓美軍의 韓國駐屯 必要性 與否를 考察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駐韓美軍의 역할을 考察함에 있어서 本 論文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假定을 設定하였다.

假定 1) 韓半島는 戰爭의 可能性이 매우 높으며, 韓國은 充分한 戰爭抑制 能力을 갖추고 있지 않다.

假定 2) 韓半島의 지정학적 位置 特性上 駐韓美軍의 役割은 韓國의 安全保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해서도 繼續적으로 緊要한 存在이다.

假定 3) 駐韓美軍은 軍事的 役割외에도 韓國의 政治, 經濟, 社會的 諸發展을 위하여 重要한 役割을 해왔다.

假定 4) 美國은 韓半島가 美國의 利益에 重要하다고 認識되었을 때에는 政治的 道具로써 軍事的介入을 正當화하지만, 戰略的 價値나 國益에 直接的인 利益이 없다고 認識되면 一方으로 撤收할 수도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은 假定을 檢證하기 위한 研究方法은 過去 關聯資料를 綜合整理하고,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을 相互 對比 分析하였으며, 이를 韓國의 國家利益이라는 側面에서 未來를 投影해보면서 駐韓美軍 減縮展望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韓國의 對應 政策方向을 考察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研究目的과 方法에 따라 本 論文은 序論 結論을 包含하여 모두 5個 章으로 構成하였다. 序論에 이어 第2章에서의 駐韓美軍의 歷史를 考察해 봄으로써 韓·美 軍事關係의 特性과 韓半島에서의 戰爭을 抑制하기 위한 駐韓美軍의 基本的 任務인 軍事的 役割이 現在와 未來에도 韓國에 必要한 要素인지를 밝혀보고 駐韓美軍이 韓國의 社會 全般에 걸쳐 미치고 있는 非軍事的 役割을 政治, 經濟, 社會的 役割의 세부분으로 區分하여 肯定的인 側面과 否定的인 側面을 分析해 보았다.

第3章에서는 駐韓美軍 減縮과 展望에 대하여 最近 展開되고 있는 駐韓美軍 減縮論爭의 國際戰略的 背景과 美 國內의 背景要因을 살펴보고 駐韓美軍 減縮計劃 眞意와 美 議會의 決議案인 “년-워너 案”과 駐韓美軍 關聯計劃 등을 平價하여 보았다.

第4章에서는 駐韓美軍의 役割變更에 따른 對備策을 마련하기 위한 1990年代의 韓·美 同盟關係 再調整 過程에서의 駐韓美軍 減縮主張에 따른 對應 方案과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對應 方案을 提示하였다.

第5章 結論은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諸般 事項에 대하여 綜合的으로 記述하였다.

以上과 같은 駐韓美軍의 役割에 대한 綜合分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할 수 있었다.

첫째, 駐韓美軍이 提共하는 經濟的 效果는 韓國 社會가 安定되고 成熟된 先進 產業社會로 定着될 때까지 韓國의 經濟發展과 國民福祉 政策의 推進計劃 등 社會發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重要하다.

둘째, 駐韓美軍은 韓半島의 平和를 保障하기 위한 諸般 信賴 造成 措置들을 이룩하고 韓國이 充分한 對北戰爭 抑制力을 確保할 때까지 韓國에 긴요한 存在이다.

셋째, 韓國이 全方位 經濟 外交를 추구함에 있어서 駐韓美軍은 韓國民이 安保에 대한 不安없이 中國, 러시아 등의 共產國家들과 相互交流關係를 넓혀갈 수 있는 基盤을 提共하여 주고 있다.

넷째, 駐韓美軍에 의해 連結되는 韓·美間의 軍事 同盟關係는 政治, 經濟, 社會 分野에 까지 波及效果를 갖게됨으로 韓國은 美國을 相對로 보다 많은 國益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目 次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第2章 駐韓美軍의 역할

第1節 駐韓美軍의 變遷 및 戰力 現況과 性格

第2節 駐韓美軍의 軍事的 役割

第3節 駐韓美軍의 非軍事的 役割

第3章 駐韓美軍의 減縮과 展望

第1節 駐韓美軍 減縮計劃의 背景

第2節 駐韓美軍 減縮計劃

第4章 駐韓美軍 役割 變更에 따른 對備策

第1節 駐韓美軍 減縮의 當面課題

第2節 駐韓美軍 減縮 主張에 대한 對應 方案

第3節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對應 方案

第5章 結 論

參考文獻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韓國戰爭 以後 韓半島의 상대적인 平和와 安定은 韓國軍과 美軍에 의한 聯合戰力의 效率的인 戰爭 抑制力에서 비롯되어 왔었다. 그러나 最近 韓國과 美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變化들을 보면 韓國戰爭에 의해 맺어진 兇猛적인 韓·美關係가 重大한 變換기에 처해 있음을 실감케 하여주고 있다.

日帝로 부터의 解放과 더불어 맺게된 韓·美間의 關係는 자의든 타의든 國際政治 秩序 속에서 韓國의 生存을 保障하여 왔던 主要한 手段이었다. 韓·美間의 關係는 주로 駐韓美軍에 의한 軍事的 關係에 의하여 形成되어 왔었다.

특히, 北韓이 全韓半島를 公산화하겠다는 國家目標 아래 軍事力을 계속 增大시켜 왔고, 各種 軍事力 挑發과 테러 活動 등을 통하여 韓半島에서 일촉즉발의 緊張狀態를 造成하여 왔었기 때문에 駐韓美軍이 韓國社會에서 갖는 영향력은 보다 絶對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戰爭이 끝난지 40여년이 지난 지금의 國內外的 環境은 過去에 비해 急激히 變化하였다. 가난하고 보잘것 없었던 韓國社會는 급속한 産業化를 통하여 괘목할 만한 經濟成長을 達成함으로써 軍事的, 經濟的 自立能力을 卓越하게 되었으며, 88올림픽 등 各種 國際 行事を 成功的으로 開催하여 韓國의 國際的 地位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반면에 美國은 戰後 世界秩序의 지도적 位置에서 日本과 유럽제국 등 동맹국들이

國力伸張에 따라 상대적인 地位弱化 現象을 겪고 있으며, 國際的 秩序 역시 미·소간의 極限對立 狀態에서 蘇聯의 붕괴로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의 추세로 變化하고 있다.¹⁾

이러한 國內外的 環境의 變化와 1980年代 以後 빠르게 擴散되고 있는 反美 感情과 漸次 高조되고 있는 民族統一에의 熱氣 등은 戰爭 抑制力으로서의 駐韓美軍의 役割에 새로운 疑問을 제기하고 있으며, 韓·美 兩國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駐韓美軍 撤收論은 이제까지 韓國의 安全을 保障하여 왔던 安保體制의 根本的인 改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로 重要的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韓國의 安保問題를 考慮하여 駐韓美軍 撤收가 韓國의 立場에서 必要的 것인지를 일상적 의미의 軍事的 概念인 戰爭 抑制의 概念에 비추어 韓半島의 安保狀況을 再照明해 보고, 國益次元에서의 駐韓美軍의 役割을 再考察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駐韓美軍의 役割을 分析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問題들은 美國이 韓半島에서 추구하여 온 國益이란 무엇이며 時代的으로 어떻게 變化하여 왔고, 自國의 國益을 위해 軍事力을 어떻게 배비하여 왔으며, 軍事的 道具로서의 駐韓美軍의 具體的 役割은 무엇이고,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에 解答을 提共하기 위하여 國際政治에 있어서 군사력이 차지하고 있는 一般的인 役割과 屬性에 따른 駐韓美軍의 役割과 美國의 對韓半島 利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假定을 前提로 駐韓美軍의 必要性 與否를 分析하였다.

假定 1) 韓半島는 戰爭의 可能性이 매우 높으며 韓國은 充分한 戰爭抑制 能力을 갖추고 있지 않다.

假定 2) 韓半島의 지정학적 位置 특성상 駐韓美軍의 役割은 韓國의 安全保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東北亞에서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緊要한 存在이다.

假定 3) 駐韓美軍은 軍事的 役割의에도 韓國의 政治, 經濟, 社會的 諸發展을 위하

1) 國防部, 『國防白書 93~94』(서울 : 國防部, 1993), p.103.

여 重要的 役割을 해왔다.

假定 4) 美國은 韓半島가 美國의 利益에 重要하다고 認識되었을 때에는 政治的 道具로써 軍事的 介入을 정당화하지만, 戰略的價値나 國益에 直接的인 利益이 없다고 認識되면 一方으로 撤收할 수도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假定을 檢證하기 위하여 本 論文은 駐韓美軍의 役割과 關聯된 國內外 各種書籍과 研究論文 및 定期刊行物 등에서 이미 研究된 結果들을 가지고 이를 綜合分析하여 整理한 것으로서, 여기에 적용된 研究方法은 歷史的 接近方法을 주로 使用하였으며, 韓半島에서 駐韓美軍 戰爭抑制 機能의 계속적인 遂行 必要성과 그에 따른 效果를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에서 相互比較 分析하여 韓國의 國家利益이라는 觀點에서 未來에 投影시켜 記述하였다.

이와 같은 研究目的과 方法에 따라 本 論文은 序論과 結論을 包含하여 모두 5個 章으로 構成하였다. 序論에 이어 第2章에서는 駐韓美軍의 歷史를 考察해 봄으로써 韓·美 軍事關係의 特性和 韓半島에서의 戰爭을 抑制하기 위한 駐韓美軍의 基本的인 任務인 軍事的 役割이 現在와 未來에도 韓國에 必要한 要素인지를 밝혀보고, 駐韓美軍이 韓國의 社會 全般에 걸쳐 미치고 있는 非軍事的 役割을 政治, 經濟, 社會的 役割의 세 부분으로 區分하여 肯定的인 側面과 否定的인 側面으로 分析하였다.

특히, 駐韓美軍의 非軍事的인 役割은 東西間의 緊張緩和가 急速히 進行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볼 때 韓·美 軍事關係의 發展方向 再定立이라는 次元에서 再考하여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第3章에서는 駐韓美軍의 減縮과 展望에 대하여 최근 展開되고 있는 駐韓美軍 減縮論爭의 國際 戰略的 背景과 美 國內의 背景 要因을 살펴보고 駐韓美軍 減縮計劃 진의와 美 議會 決議案인 “년-워너 案”과 駐韓美軍 關聯計劃 등을 平價하고자 한다.

第4章에서는 駐韓美軍의 役割變更에 따른 對備策을 마련하기 위한 1990年代 韓·美 同盟關係 再調整 過程에서의 駐韓美軍 減縮 主張에 따른 對應 方案과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對應 方案을 提示하는 次元에서 考察하였다.

第5章은 結論으로서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諸般 事項에 대해서 綜合的으로 整理 하였다.

第2章 駐韓美軍의 役割

第1節 駐韓美軍의 變遷 및 戰力 現況과 性格

1. 駐韓美軍의 變遷

120여년전인 1866년 大洞江에서의 美國商船 “제너럴 셔먼호” 擊沈事件으로 敵對的인 因緣을 맺었던 韓·美間의 軍事關係는 우리나라가 日帝로부터 解放되면서 本格的으로 떨 수 없는 사이로 變하기 始作했다. 日本이 2次大戰에서 敗北, 無條件 降服을 하자 美軍과 蘇聯軍이 北緯 38도선을 基準으로 각각 南·北韓에 進駐해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말음으로써 韓·美 軍事關係가 維持되었다.

1945年 9月 8日 美 24軍團과 7艦隊 兵力을 태운 42척의 艦艇이 仁川항에 도착하여, 11月까지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위해 南韓의 各 地域에 配置된 兵力은 7만 여명이며, 朝鮮總督部가 있었던 중앙청에 성조기를 게양한 후 당시 “맥아더” 將軍의 “포고 1호”에 의해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될 때까지 3年間 軍政을 實施하였다.

그후 蘇聯軍이 北韓 地域에서 徵收한데 이어 美軍이 이승만 大統領의 強力한 美軍 徵收 延期 要請에도 不拘하고 1949年 6月 29日까지 軍事 拷問團 5백여명만 남긴채 完全히 徵收하였다.

이승만 大統領의 憂慮대로 1年後인 1950年 6月 25日 韓國戰爭이 발발하게 되자 美軍은 다시 유엔의 決議에 따라 韓國戰에 參戰하게 되었다.

“딘” 소장을 師團長으로한 美 第24師團 兵力이 日本 基地로부터 1척으로 韓國戰에 配置된데 이어, 7月 9日 “요코하마”에 있던 美8軍의 先發隊가 급파되어 大邱에 駐韓 美8軍司令部를 設置하였다.

그러다가 中共軍의 介入으로 韓國戰爭이 새로운 樣相으로 變化하게 되자, 美國은

戰爭을 制限的으로 轉換하고 韓半島 統一이라는 戰爭目標을 變更하여 전후상태에서의 休戰을 摸索하게 되었으며, 日本의 防衛를 考慮하여 最小한 봉쇄정책으로 還元하였다.

韓國戰爭이 끝났을 무렵에는 陸軍 7개 師團, 海兵隊 1개 師團 등 모두 32만 여명이 駐屯하게 되었으나, 美國은 1945년부터 採擇하게 된 “大量報復 戰略”에 따라 駐韓 美 地上軍을 減縮시키고 核戰 遂行을 위하여 “팬토믹(Pantomic)” 師團으로 改編하였으며, 1956년부터 核武器를 裝備하기 始作하였다. 그래서 駐韓 美 地上軍은 1956年 2개 戰鬥師團을 비롯한 支援部隊를 包含하여 5만여명이 되었으며, 이 5만명 水準은 1971년까지 15年 동안이나 美國의 對韓國 政策에 있어서 軍事의 手段으로서의 役割을 하여 왔다.

그러다가 “닉스 독트린”에 의한 “充分性 戰略”에 따라 1970년부터 第7師團 兵力이 撤收 하였으며, 이에 따라 美 第2師團은 休戰線과 서울 사이의 後方으로 이전하여 155마일 全休戰線을 韓國軍이 擔當하게 되어 駐韓 美 第2師團은 北韓의 南侵을 阻止할 수 있다는 軍事의 能力보다는 政治的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變化하였다.

만일 北韓이 南侵하여 서울을 향하게 되면 美 第2師團과의 接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引繼鐵線(Trip Wire)으로서 美國의 自動介入을 意味하게 된다는 것이다.

美國은 1973年 越南 撤收 以後 駐韓美軍의 現兵力 水準 維持를 수차에 걸쳐 表明하였다. 즉, 1974年 11月 22日 “포드” 美 大統領은 朴大統領과의 서울 共同聲明에서 駐韓美軍의 現兵力 減縮計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強調하였으며, 1975年 4月 30日 越南이 共產化되자 同年 8月 “슐레진저” 國防長官의 韓國 訪問時 駐韓美軍을 訪問하여 駐韓美軍 不減縮을 保障까지 하였다.

그러나 1977年 1月 “카터” 行政府가 들어서자 駐韓美軍 撤收는 舉論되어, 同年 3月 9日 “카터” 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韓國으로부터 駐韓 美 地上軍 戰鬥兵力을 앞으로 4~5年內에 걸쳐 撤收한다고 公表하였다. 하디만 “카터” 行政府의 撤收政策은 美 議會와 軍部の 強力한 反對에 부딪치게 되어, 1978年 4月 聲明을 통하여 駐韓美軍 撤收計劃은 修正 保留되었다가 1981年 “레이건” 大統領에 의해 破기되었다. 2)

1980年代에 들어 美 議會는 貿易 및 財政赤字의 深化로 인한 經濟的 어려움과 이

2) 東亞日報社, 『駐韓美軍』(서울: 東亞日報社, 1991), pp.185~189.

에 따른 國防費의 大幅的 削減, 美·蘇間 軍축협상의 進展에 따른 世界的 緊張緩和 雰圍氣의 擴散 등으로 유럽주둔 兵力 減縮과 함께 아·태지역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 兵力을 再評價할 것과 특히, 한국의 經濟, 軍事力의 伸張과 國民意識의 成長으로 駐韓美軍의 減縮 및 役割 變更을 考慮하도록 美 國防部에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美 議會는 지난 89年 8월 1日 “년-워너 修正案”을 채택하여 行政府로 하여금 亞·太地域 駐屯 美軍에 대한 戰略的 再評價와 아울러 美國의 負擔을 同盟國들이 負擔하는 方案에 대해 이 地域 同盟國들과 協議한 結果를 議會에 提出하도록 要求하였다.³⁾

이에 따라 美 行政府는 駐韓美軍의 任務, 配置, 部隊構造 등에 대한 再平價를 實施하여 駐韓美軍의 段階的 減縮 및 役割 調整 計劃을 立案하였으며, 이것은 1990年 2月の 韓·美 國防長官 會談에서 最初 協議를 거쳐 그해 4월에 “동아시아 戰略構想”으로 發展되어 現在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駐韓美軍의 減縮에 따른 衝擊을 최소화 하면서 長期的으로는 自主國防을 達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즉, 1990年 第12次 韓·美 軍事委員會 會議를 통하여 1992年末까지의 1段階 推進事項에 合議하였으며, 이에 따라 1段階 期間중에는 地上軍 5,000명과 空軍 1,987명 등 총 6,987명이 撤收하였다. 그리고 1991年 第23次 安保協議會議에서는 1993년부터 시행될 제2단계 駐韓美軍 減縮을 北韓의 核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留保하기로 合議하였으며 이것은 1992年 第24次 會議와 1993年 6月 韓·美 國防長官 會談 및 7月 韓·美 頂上會談 등 일련의 協議過程에서 再確認 되었다.⁴⁾

또한 1993年 11月 4日 閉幕된 第25次 安保協議會議에서도 駐韓美軍 2段階 減縮 繼續 留保키로 하였다.⁵⁾

그러나 適切한 時期에 가서 韓半島 安保環境이 好戰되고 南北 平和共存이 가시화 되면, 韓國軍 戰力構造上的 脆弱分野를 考慮한 適正水準의 追加減縮이 可能할 것이며, 長期的으로는 駐韓美軍의 韓半島 安保支援과 地域均衡者 役割에 상응한 適正

3) 國防部, 『國防白書 91~92』(서울 : 國防部, 1991), p.198.

4) 國防部, 『國防白書 93~94』(서울 : 國防部, 1993), pp.103~104.

5) 『每日新聞』, 1993年 11月 15日字, 5面.

規模가 繼續 殘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⁶⁾

2. 駐韓美軍의 戰力 現況과 性格

韓·美 安保協力에 있어서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駐韓美軍의 戰力 現況과 性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駐韓美軍은 美8軍司令部 隸下에 동두천 일대에 配置된 美 2師團과 7空軍司令部 隸下部隊의 51 및 8 戰術飛行團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⁷⁾

1992年 12月 現在 駐韓美軍의 兵力現況은 地上軍 27,000명, 海軍(基地兵力) 400명, 海兵隊 500명, 空軍 9,513명 등 총 37,413명으로 構成되어 있고,⁸⁾ 主要 裝備로는 戰車 163대, 裝甲車 311대, 戰術機 250대 등을 保有하고 있다.⁹⁾

駐韓美軍의 戰力構造는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¹⁰⁾

첫째, 駐韓美軍은 戰略軍인 同時에 戰術軍의 性格을 갖는다. 兵力面에서 본다면 4만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戰術軍으로 볼 수도 있으나 空軍司令部, 戰術飛行團 뿐만 아니라 유사시 增員海軍인 7艦隊의 受容部隊가 存在하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戰略軍이다.

둘째, 駐韓美軍은 綜合的 性格을 갖는 部隊構造를 갖추고 있다. 多연장 미사일(MLRS), 美 陸軍 戰術 誘道武器體制(ATACMS) 및 空軍과 特殊部隊를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綜合的 性格의 部隊라고 할 수 있다.

셋째, 最近 徹收된 것으로 밝혀진 核武器가 現在는 韓半島內에 配置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사시 卽刻 核雨傘의 保護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駐韓美軍의 性格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駐韓美軍은 形式論理로 볼 때 韓半島의 平和와 韓國防衛를 위하여 유엔에

6) 國防部, 前揭書(93~94), p.104.

7) 田一平, “駐韓美軍에 關한 考察” 『海洋戰略』 第78號(1993. 3), p.10.

8) 海軍本部, 『美國의 亞·太地域 戰略 安保環境分析』, (1993. 3), p.29.

9) 國防部, 前揭書(93~94).p.38.

10) 田一平, 前揭書, p.10.

11) 上揭書, p.10.

서 派遣한 유엔 平和維持軍으로서의 性格을 지니며, 또한 韓·美 聯合司令官은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갖고 있다.

둘째, 韓·美 相互防衛條約에 따른 集團防衛를 위한 駐屯軍 즉, 同盟軍으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駐韓美軍이 形式論理로 유엔군의 一部이기는 하나 實質的으로 停戰協定 以後 맺어진 韓·美 相互防衛條約에 의해 北韓 共產集團의 侵略으로부터 防衛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駐韓美軍은 韓·美 合同軍司令部를 設置하여 유사시 韓·美 聯合으로 作戰을 遂行하게 된다.

셋째, 駐韓美軍은 美國의 世界戰略 중에서 아시아 戰略의 一部로서의 性格을 갖는다. 世界戰略의 脈絡에서 볼 때 駐韓美軍은 蘇聯을 封鎖하는 美軍의 重要한 太平洋 前進基地의 展開 戰力이다.

第 2 節 駐韓美軍의 軍事的 役割

韓國戰爭 以後 韓國의 防衛를 責任져 왔던 駐韓美軍의 存在는 韓國의 國防問題에 대하여 韓國軍이 美軍에게 크게 依存하는 結果를 招來하여 왔다. 특히, 作戰統制權을 駐韓美軍 司令官이 行事함으로 韓國軍은 單獨의 獨自的 作戰能力을 培養하는데 약간 소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0여年間 比較的 큰 變化없이 維持되어온 韓·美 安保關係가 90年代에 들어 커다란 轉換點을 맞고 있는 現 視點에서 駐韓美軍이 韓半島 安定과 東北 아시아 政勢安定에 寄與한다는 點에서는 재론의 餘地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軍事的 役割에 의하여 韓半島의 安定을 위해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1. 韓半島에서의 戰爭抑制

駐韓美軍의 가장 重要하고도 一次的인 役割은 무엇보다도 北韓에 의한 全面戰爭을 抑制하는 데 있다.

南北韓間의 戰爭抑制 特性은 現實的으로 韓國의 劣勢한 軍事力과 北韓의 韓半島 共產化 統一意志 때문에 韓國의 獨自的 能力만으로는 韓半島에서 戰爭을 抑制하기가 어려운 狀況에 처해있다.

北韓은 過去와 같이 全面 奇襲攻擊을 통한 戰爭主導權 掌握, 前後方의 同時 戰場化에 의한 速戰速決로 戰爭을 終結한다는 攻勢概念을 堅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軍事力 면에서도 〈圖表 2-1〉 南北韓 軍事力 現況¹²⁾ 에서 알 수 있듯이 南韓에 비해 兵力은 약 1.6배, 裝備는 2배 水準의 優勢한 軍事力을 確保하고 있다.¹³⁾

〈圖表 2-1〉 南北韓 軍事力 現況

區 分		韓 國			北 韓	
兵 力		陸軍	54만명	65.5만명 *	90만명	103만명 **
		海軍	6만명		4.6만명	
		空軍	5.5만명		8.4만명	
地上軍	部隊	軍 團	11개		17개	
		師 團	50개 ***		53개	
		旅 團	21개		99개	
	裝備	戰 車	1,800대		3,800대	
		裝甲車	1,900대		2,500대	
		野 砲	4,500문		10,300문	
海上 裝備	戰鬥艦	190척		434척		
	支援艦	60척		310척		
	潛水艦	1척		26척		
航空 裝備	戰術機	520대		850대		
	支援機	190대		480대		
	헬 기	600대		290대		

* 防衛兵 미포함, 海軍에 海兵兵力 包含

** 陸軍에 海兵兵力 包含

*** 海兵師團 包含

12) 國防部, 前揭書(93~94), p.67.

13) 上揭書, p.66.

結局 北韓은 武力 赤化 統一이라는 基本目標은 變更하지 않은 채 核武器 개발과 핵카드를 利用하여 北韓이 當面한 權力承繼, 經濟難, 國際的 孤立 등의 3중고를 解決하려는 戰術的 융통성을 堅持하고 있으며 裝備 現代化 推進, 奇襲能力 保有, 兵力 및 裝備의 前進配置 등 여전히 戰爭準備를 強化하고 있어 우리의 가장 큰 軍事的 威脅이 되고 있다.¹⁴⁾

그러나 이렇게 脆弱한 戰爭抑制의 環境下에서도 實質的인 戰爭防止 結果는 漢江 以北地域에 位置하여 引繼鐵線과 같은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美 第2師團 兵力으로 戰爭抑制 意志를 強力히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美 相互防衛條約은 NATO식 條約이 아니다. 즉, NATO 條約體系가 美國의 自動介入을 保障하고 있는 데 반하여, 韓·美 相互防衛條約은 美國의 意志에 따라 選擇的으로 介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약점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美國의 自動介入이 保障되고 있으며, 그 實質的인 役割을 駐韓美軍이 擔當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美國內 一部 駐韓美軍 撤收論者들은 美 第2師團이 볼모가 되어 休戰線에 있는 한 美國은 원하지도 않은 戰爭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그러므로 韓國의 入場에서 볼 때 美 地上軍의 役割은 戰爭再發時 美國이 防衛公約을 遵守해 줄 것이라고 保障해 줌으로써 北韓의 攻擊敢行을 거의 確定的으로 抑制해 주는 데 있다.

韓國으로부터 美 地上軍이 撤收한다면 韓半島에 紛爭이 再發되는 境遇에 美軍이 再投入되리라는 保障은 없다. 특히 美國은 政策決定 構造가 複雜하고 國民 輿論이 큰 影響力을 行事하는 國家이므로, 美 國民들은 越南戰의 敗北이후 海外 紛爭에 直接 介入을 크게 反對하여 왔으며, 議會는 自國이 包含되지 않는 國外的 紛爭에 大統領의 軍事的 權限을 制限하는 戰爭遂行權을 制定하여 大統領을 牽制하고 있어 美軍의 재투입을 完全히 保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考慮할 때 美國의 自動介入 裝置로서의 駐韓美軍의 存在는 北韓에게 戰爭挑發時 韓國軍 및 駐韓美軍과 對敵하여야만 하는 心理的 負擔을 안겨 줌

14) 上揭書, p.68

15) 李相賢, “駐韓美軍의 役割과 防衛分擔”, (碩士學位論文, 國防大學院, 1991. 12), p.27.

으로써 韓半島에서의 戰爭을 抑制하고 있는 것이다.

2. 韓國軍의 防衛能力 補完

1993年 現在 北韓軍은 韓國軍에 비해 兵力은 약 1.6배, 裝備는 2배 水準의 優勢한 軍事力을 維持하고 있어 韓國軍에 비해 優勢하지만, 駐韓美軍이 戰車 163대, 裝甲車 311대, 戰術機 250대 등을 保有하고 있어 韓國軍의 戰鬪能力을 補完해 주고 있다.

美 第2師團의 戰鬪力만 해도 韓國 陸軍全體 戰鬪力의 5.5%에 달하는데 이것은 韓國軍 1.7개 師團에 該當하는 戰鬪力이다. 美 空軍 第7空軍 역시 韓國空軍의 戰鬪力의 30%를 차지하는 重要한 戰術的 支援을 提共한다.¹⁶⁾

또한 駐韓美軍은 韓國軍에게 北韓軍의 動向에 대한 情報을 提共해 주고 있다. 戰略情報는 假想敵國에 관한 情報을 蒐集하여 韓國軍이 戰爭準備를 더 合理的으로 할 수 있고, 北傀 攻擊前에 對應準備를 위한 時間的 餘裕를 얻을 수 있으며, 敵對行動 發端부터 作戰實施間 適切한 決心 등을 하는데 必要한 情報이다. 그러나 韓國軍의 이러한 情報蒐集 能力은 미미한 水準으로서 北韓의 戰爭 挑發 徵候에 대한 早期警報가 거의 不可能한 狀態이므로, 早期警報에 관해서는 거의 美軍側에 依存하고 있다. 이같은 機能의 中樞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 烏山 空軍基地에는 戰術 航空 統制本部(TACC) 以外에도 戰略空軍 司令部(SAC)에서 派遣된 U2-R 정찰기 2대와 日本에서 派遣된 RF-14C 정찰기 3대가 상주하여 정찰활동을 遂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⁷⁾

3. 對北韓 支援勢力의 牽制

北韓은 中·러 國境을 바로 접하고 있음으로서 軍事 地理적으로 有利한 入場에 있고, 1961年 7月 6日 締結한 朝·蘇 相互防衛條約은 1992년에 廢棄되었으나 1961年 7月 1日 締結한 朝·中 相互防衛條約은 繼續 有效하며 특히, 韓·美 相互防衛條約과 달리 北韓이나 中共이 戰爭狀態에 처하게 되는 境遇 지체없이 軍事的 및 其他

16) 黃光男, “韓·美 軍事同盟關係 考察”, 『軍事評論』 第301號(陸軍大學, 1992. 7. 30), p.51.

17) 崔燦榮, “駐韓美軍의 役割에 關한 研究”(安保過程論文, 國防大學院, 1990), p.22.

援助를 提供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環境에 있는 相對國에 對應하여 前進防禦 概念에 立脚한 駐韓美軍의 軍事的 役割은 中國은 물론 러시아의 對北韓 軍事支援을 最小限度로 制限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結局 駐韓美軍은 美國과 中國, 러시아 軍事力 均衡을 實質的으로 維持시키는 役割을 통하여 地域的 安定을 維持시켜 가는 동안, 한편으로는 南,北韓間 接觸 交流의 들과구를 찾아 結果的으로는 韓半島 問題를 合理的이고,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寄與하는데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韓半島內에서의 休戰協定 維持

韓國은 休戰協定の 당사자가 아니기에 韓·美 聯合司令官과 유엔군의 司令官이 기도한 駐韓美軍 司令官이 유엔군 司令官으로서 休戰協定の 違反에 대해서 警告를 할 수 있으며 必要하다면 適當한 軍事的 措置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군 司令官으로서의 駐韓美軍 司令官은 韓半島의 現象을 維持하고 있는 休戰協定 體制의 維持에 責任을 지고 있는 것이며, 駐韓美軍 司令官으로서 유엔군 司令官의 地位나 位置의 變化는 곧 休戰協定 體制에 修正을 해야만 하는 問題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韓國戰爭의 예로써 볼 수 있듯이 北韓은 平素 不法 行爲를 恣行하면서도 한국측이 挑發한 것처럼 虛偽 宣戰하는 事例가 허다하므로, 駐韓美軍은 北韓의 武力 挑發 行爲의 監視 내지 確因機能을 遂行하고 있을 뿐 아니라 北韓이 이러한 國지무력 行爲를 自己들에게 有利하도록 操作하고, 政治的으로 利用하고자 하는 企圖를 沮止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5. 防衛産業 技術能力 向上

防衛産業의 始作은 駐韓美軍 徵收에 따른 보안책으로 韓國軍 現代化를 위한 美國의 資本과 技術資源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美國은 1971年 美 第7師團의 徵收補完에 따른 韓國軍 現代化 計劃資金 9.88억 달

18) 上揭書, pp.24~25.

러를 提共하였고, 韓國은 M-16 소총 生産工場을 建設하기 위하여 美國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直接借款을 導入하는 등 1971년부터 始作된 FMS 借款이 對韓 安保 支援의 주류를 이루었다.

FMS借款은 自主國防建設을 追求하는 韓國의 國防財源 및 戰力增強 財源으로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였으며, 美國으로부터 最近武器를 導入하는 主要財源으로 活用되었다.

또한 FMS 借款과 더불어 1970年代 以後에 本格的으로 支援된 美國의 防衛産業 技術은 韓國의 基本兵器 生産體制 建設의 礎石이 되었으며, 基本兵器的 第3國 輸出과 一部 高度精密兵器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具備하는 데 큰 寄與를 한 것으로 平價된다.¹⁹⁾

6. 南北韓間의 軍備競爭 抑制

軍備競爭의 外재적 要因은 두개의 敵對國家 또는 同盟國 相互間에 展開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軍備를 增強하면 競爭國이 軍備를 增強하고 이것이 다시 相對國을 자극하여 軍備增強의 악순환이 展開되는 데, 이러한 軍備競爭이 韓半島에서는 주로 外재적 要因에 의하여 촉발되고, 內재적 要因이 軍備競爭을 強化시키는 樣相을 띄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韓國戰爭 以後 北韓은 全韓半島의 公산화라는 그들의 國家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軍事力을 급속도로 強化시켜 軍事力의 대남우위를 維持하여 오고 있지만, 韓國軍의 戰力은 “駐韓美軍 + 韓國軍”의 公式에 의하여 그 戰力增強이 제한되어 왔다.

1970年代에 駐韓美軍의 撤收와 더불어 韓國軍의 戰力 增強 事業이 始作되었으나, 이같은 戰力 增強 事業은 駐韓美軍의 駐屯을 假定하여 韓國 經濟發展을 크게 阻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漸進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美國은 駐韓美軍을 韓國에 駐屯시킴으로써 北韓에 의한 南侵을 抑制할 뿐만 아니라 韓國에 의한 戰爭 可能性도 抑制하는 政策을 追求하여 왔다. 따라서 北韓의 軍事力에 비하여 韓國軍의 軍事力은 항상 우세 劣勢한 位置에 維持시키고 不足한 戰力을 駐韓美軍으로 하여금 補完함으

19) 黃東準, 韓南星, 李相笠, 『美國의 對韓 安保支援 平價와 韓美 防衛協力 展望』(서울 : 民英社, 1990), pp.50~51.

로써 北韓의 軍備競爭을 자극시키지 않을 것과 韓國이 北韓을 攻擊할 만큼 과도한 軍事力을 提共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다시 말해서 駐韓美軍은 南北韓間의 軍備競爭을 어느 정도 抑制하고 調整하는 役割을 遂行하므로 韓半島의 緊張狀態를 緩和시키는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²⁰⁾

第2節 駐韓美軍의 非軍事的 役割

美軍의 韓國內 駐屯은 그 軍事的 意味의 重要性 뿐만 아니라 그것이 韓國의 政治, 經濟, 社會 등 각 分野에 걸쳐 미치게 되는 副次的 效果와 軍事外的 役割에 의 하여서도 韓國民에게 매우 重要的 存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駐韓美軍의 非軍事的 役割의 遂行에 따라 最近 社會 一部 階層에 의 하여 駐韓美軍 撤收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役割의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에 대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役割로 區分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1. 政治的 역할

가. 否定的 側面

駐韓美軍이 갖는 政治的 意味의 否定的 側面은 다음과 같다.²¹⁾

첫째, 統一問題에 對한 解決을 위한 政治的 主導權 掌握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은 南北韓 關係의 모든 問題에 대하여서는 駐韓美軍을 연계시켜 主張하여 왔으며, 韓國政府를 獨立的인 政府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韓國政府는 南北對話와 協商에 있어서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기 어려웠으며 北韓의 對內外的 宣傳攻勢를 위한 실마리를 駐韓美軍이 提共하여 왔다.

둘째, 韓國에 對한 美國의 壓力手段으로도 使用되어 왔다.

韓國戰爭 以後 駐韓美軍이 韓國의 生存을 保障해주는 絶對的 位置에 있었던 것 만큼, 그리고 韓國이 自身の 防衛를 美國에 依存하는 것 만큼 韓國에 있어서 駐韓美軍의 政治的 意味가 보다 컸던 것은 틀림이 없었으며, 自身の 軍隊로써 韓國의

20) 崔燦榮, 前揭書, pp.27~29.

21) 上揭書, pp.34~37.

防衛를 責任져주고 있는 미국이 그들의 理念과 體制 및 政策에 韓國이 追從하도록 壓力手段이 되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70年代 韓國內의 人權問題는 카터 行政府의 駐韓美軍 徵收計劃의 발미를 提共하였으며, 1980年代 들어와서는 韓國의 農産物市場 開放과 관련된 通商壓力의 手段으로 駐韓美軍 徵收를 連繫시키고자 하는 論議가 美議會에서 제기 되는 등 駐韓美軍 徵收는 韓國에 對한 強力한 壓力手段으로 作用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 駐韓美軍은 韓國의 國民的 자부심과 위신을 損傷시키기도 하였다.

駐韓美軍 司令官의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 保有는 韓國은 國際的 이미지 특히 第3世界에 대한 韓國의 이미지가 美國에 從屬되어 있다는 印象을 줌으로써 韓國의 國家위신을 下落시키고 獨立國家의 主權侵害라는 民族的 자부심을 損傷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이 經濟發展에 따라 어느정도 自主國防 能力을 具備하고, 國際的 地位向上에 따라 國民的 자부심이 고양되는 등 時代的 狀況의 變化와 韓·美 關係 대등성 要求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過去의 不平等 關係의 持續이 韓國國民의 자존심과 國際的 이미지를 損傷시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나. 肯定的 側面

(1) 東北亞 勢力 均衡의 維持

韓國에서의 駐韓美軍 駐屯은 韓半島의 勢力均衡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서의 勢力均衡을 維持하고 平和를 持續시키는 本質的인 機能을 擔當한다. 韓半島는 南北韓과 周邊國과의 힘의 格差가 크고 韓國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周邊 強大國의 關心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南北의 理念對立 때문에 韓半島의 安保問題는 주변 4강의 關心 밖에 나설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韓半島에서의 平和維持는 동북아시아 問題들과 關聯되어 있는 國家들에 게 극히 重要하며, 그것은 同時에 이 地域 國家들간의 軍事力 均衡狀態에 影響을 받는다. 특히, 美國은 만약 北韓이 戰爭을 挑發할 境遇 傍觀할 수 없는 入場에 처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自由陣營 國家들에게 美國의 安保公約에 對한 신뢰성 問題를 若起시킬 수 있기 때문에 重要的 것이다.

또한 中國과 蘇聯이 北韓의 친동맹 友邦國家로 存在하고 있으며, 北韓과 이들 國家가 韓國의 安保에 相對的 國家로 存在하고 있는 한, 그리고 韓·日間的 關係가 軍事的 同盟關係로 發展될 수 없는 狀況下에서 韓國이 찾을 수 있는 唯一하고 신뢰할 만한 軍事的 安保 維持 手段은 美國과의 同伴關係를 維持하는 駐韓美軍의 存在이다.²²⁾

(2) 相互 依存的 韓·美 關係 發展 媒介體로서의 役割

그간의 韓·美 關係는 保護者-被保護者의 關係로서 美國이 一方的으로 韓國에 수혜를 베푸는 비대등적 同盟關係였다.

韓國의 入場에서 볼 때 美國과의 軍事同盟 關係는 우선 北韓으로부터의 軍事的 側面을 최우선시 해 왔으며, 그 다음이 國際社會에서 外交的 支援과 協力を 위한 外交的 側面일 것이다.

美國의 入場에서 볼 때 韓國으로부터 政治, 外交的 支援이나 또는 美國自體의 防衛를 위한 軍事的 支援을 期待하기 보다는 韓國에 對한 政治, 軍事的 영향력을 維持하면서 美國이 追求하는 世界戰略 또는 對아시아 戰略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戰略的 側面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그러나 最近의 國際秩序 變化와 韓·美 兩國의 國際的 地位變化는 이러한 基本立場에 變化를 若起시켜 相互 依存的 利益追求의 關係로 發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이 駐韓美軍을 維持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政治的 利益은 다음과 같다.²³⁾

첫째, 美國은 韓國에 對하여 增加하는 그리고 意味있는 經濟的 利害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韓國의 安全이 美國 經濟에도 보다 重要하게 되었다.

둘째, 美國에게 있어서 아시아 地域은 過去에 비해 經濟的, 戰略的으로 훨씬 重要한 地域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美國의 軍事戰略은 基本的으로 本土에서 戰爭을 안한다는 概念으로 前進防禦基地에 基礎한 戰爭對備 戰略을 追求하고 있기에 韓國에 確保하고 있는 前進基地는 美軍의 維持經費를 節減시키는 등의 效果를 가짐으로써 美國에게 보다 높은 戰

22) 上揭書, pp.38~40.

23) 上揭書, p.41.

略的 價値를 提供하는 것이다.

반면에 韓國은 美軍이 駐屯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利益을 얻을 수 있다.²⁴⁾

첫째, 韓國을 美國에게 친밀한 友邦國으로 認識시킴으로써 韓·美關係가 政治, 經濟, 社會的 諸分野에 걸쳐 보다 긴밀하게 維持될 수 있다.

둘째, 韓國의 産業構造는 대부분의 원자재와 원료를 海外에서 輸入하여, 이를 商品化하여 輸出하는 經濟體制이므로 美國이 追求하는 世界 戰略에 同參함으로써 생명선과 같은 海洋 交通路의 安全을 保障 받을 수 있다.

셋째, 韓國은 그간의 經濟發展에 따른 經濟領域의 擴大로 地域安보問題가 보다 重要하게 되었으므로 駐韓美軍의 地域安定 維持 役割에 의하여 安定的 經濟發展을 위한 環境을 保障받고 있는 것이다.

넷째, 韓國의 北方政策 推進에 따른 共產圈 國家와의 經濟關係 增大는 韓國의 安全이 確保된 狀況下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駐韓美軍이 提供하는 安全保障의 實際的 心理的 效果는 보다 積極的인 對外政策을 推進하게 하는 데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것이다.

(3) 南北韓間 신뢰회복의 制度的 裝置로서의 役割

1948年 韓半島에 두개의 敵對政府가 樹立된 以後 兩側은 분단으로부터 若起되는 問題들을 解決하고자 不斷히 勞力하여 왔으나 時間이 흐름에 따라 南北韓 사이에는 相互 적의와 不信이 오히려 增大되어 왔다.

따라서 韓國戰爭을 겪었던 不安感和 北韓의 前進配置되어 있는 軍事力과 攻勢的 軍事戰略 要因 등은 兩側의 複雜한 이데올로기적 心理的 要素들과 軍事的 對立, 政 통성 競爭, 經濟的 競爭 등에 따른 相互不信을 除去하고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키 기 위해서는 南北韓 相互間의 軍備減縮 등을 包含한 諸般 신뢰조성 措置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조성 措置들은 南北韓 政府의 生存에 對한 安보의 威脅要素가 制度的으로 除去되었을 때만 進展이 있을 것이므로 駐韓美軍의 役割은 바로 北韓의 戰爭挑發 뿐만 아니라 韓國에 의한 어떤 戰爭 可能性도 抑制하는 役割을 遂行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間의 적대감과 不信을 解消할 수 있는 신뢰조성 措置들을 韓半

24) 上揭書, pp.42~45.

島에 定着시킬 수 있는 制度的 裝置로서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美國과 北韓이 接觸을 增大하고 相互關係 發展을 통해서 駐韓美軍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南北韓 關係 發展을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駐韓美軍은 重要的 意味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²⁵⁾

(4) 左傾 暴力 革命 勢力들의 活動制約

北韓의 對南戰略은 “武力赤化統一” 方式과 “人民民主主義革命” 戰略이므로 美軍의 韓國駐屯은 北韓의 “武力赤化統一” 方式이 有效하지 않다는 事實을 北韓에게 確信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전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可能性을 除去시켜 줌으로써 韓國內의 左傾 暴力 革命勢力들의 活動을 萎縮시키는 效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2. 經濟的 役割

가. 直接的인 寄與

(1) 韓國의 國防費 負擔 減少

駐韓美軍은 그동안 과도한 國防費 負擔을 減少시키는 效果를 주었으며 國防豫算을 經濟建設에 專用할 수 있게 하여 韓國의 持續的인 경제성장에 寄與하여 왔다.

美國은 駐韓美軍을 維持하기 위하여 年間 약 26억 달러의 財政을 消費하여 오고 있으며, 太平洋 隸下部隊로서 韓半島 유사시 韓國 支援을 1次 任務로 하는 軍事力의 維持에 年間 약 250억 달러를 使用하고 있는데 이는 곧 美軍의 支援없이 獨自的인 防衛를 위해서 우리가 負擔해야 될 經費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⁷⁾

(2) 心理的 效果

駐韓美軍은 韓國에 安定된 投資環境을 造成해 주고 있다. 韓國은 世界에서 紛爭 可能性이 가장 높은 地域 中の 하나이지만 駐韓美軍의 存在와 美國이 提供하는 安保公約은 北韓이 戰爭을 挑發할 수 없을 것이라는 確信을 對內外的으로

25) 上揭書, pp.45~47.

26) 上揭書, p.49.

27) 上揭書, pp.49~51.

確認시켜 줌으로 韓國의 經濟發展을 위한 環境造成에 기여하여 왔다. 즉, 駐韓美軍의 存在 특히, 美 地上軍의 自動介入 裝置는 韓國內의 戰爭不安을 輕減시켜주므로 內外國人들의 投資欲求를 誘導할 수 있었으며 이는 輸出 주도형의 韓國經濟에 重要한 心理的 社會安定 裝置가 되어왔다. ²⁸⁾

(3) 直接使用 經費에 의한 寄與

駐韓美軍이 韓國에서 使用하는 經費는 韓國의 雇傭創出 및 外貨獲得에도 重要한 寄與를 하고 있다.

駐韓美軍 發表에 따르면 1989年 한해동안 駐韓美軍은 韓國人 雇傭人의 給料와 國內 物品 購入 등 〈圖表 2-2〉 駐韓美軍의 經濟的 寄與 ²⁹⁾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합쳐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³⁰⁾

〈圖表 2-2〉 駐韓美軍의 經濟的 寄與

(單位 : 백만 달러)

區 分	金 額
韓國人 民間人 給料	283.1
駐韓美軍의 支出費	140.8
PX 國內 購買	16.2
住宅 賃借 費用	95.5
韓國 販賣處 年間 計劃	168.9
國內 專屬 및 出張費	7.3
基地 公務費	299.5
計	1,011.3

나. 間接的인 寄與

韓國戰爭 以後 美國의 대규모 經濟, 軍事援助는 韓國의 生存이나 發展에 있어서 間接的인 寄與를 해왔다.

28) 上揭書, pp.51~52.

29) 國防部, 『國防白書 89~90』 (서울 : 國防部, 1989), p.165.

30) 田一平, 前揭書, p.13.

美國은 1950년부터 1948년까지 56.4억 달러의 無償援助와 1971년부터 1986년까지 23.5억 달러의 FMS 借款을 韓國에 提供하였고, ³¹⁾ 駐韓美軍이 韓半島에 있어서 戰爭을 抑制하여 攄으로써 可能하였던 韓國軍의 越南派兵은 1960年代 韓國의 經濟成長에 必要한 莫大한 資本을 獲得할 수 있는 手段이 되었다.

특히, 韓國이 월남전 參戰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經濟的 效果는 莫大하였던 것으로써 이것은 美國의 對韓國軍 援助額 增加와 韓國이 越南에서 많은 外貨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1965년부터 1973年 韓國軍이 完全撤收할 때까지 越南參戰으로 獲得한 總收入額은 무려 10억 달러에 달했고, 이 資金은 第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완수에 必要한 外貨를 充當시켜 年평균 經濟成長率 8.5%를 훨씬 상회하는 12%의 經濟成長率을 記錄하게 되었던 것이다. ³²⁾

3. 社會的 影響

가. 否定的 側面

駐韓美軍이 韓國社會 全般에 걸쳐 影響을 끼치고 있는 否定的 要因은 다음 두가지로 區分해 볼 수 있다. ³³⁾

첫째, 駐韓美軍은 韓國社會에 美國의 大衆文化를 전파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遂行하여 왔는데 駐韓美軍이 우리에게 전달한 美國의 大衆文化는 美國 下層市民 文化로서 이같은 下層市民 文化의 전파는 韓國社會에 否定的 結果를 招來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駐韓美軍으로 인한 反美感情의 擴散으로 過去 美國人들의 高壓的인 態度에 의한 國民 感情의 損傷과 最近 統一論議가 活性化되고 있는 課程에서 自主的 統一을 가로막는 最大의 걸림돌이 바로 駐韓美軍이라는 認識에 의하여 反美感情은 보다 擴散되고 있는 趨勢이다.

나. 肯定的 側面

駐韓美軍의 肯定的 側面은 다음 세가지로 區分해 볼 수 있다. ³⁴⁾

31) 黃東準, 韓南星, 李相笠, 前揭書, p.50.

32) 崔燦榮, 前揭書, pp.53~54.

33) 崔燦榮, 前揭書, pp.54~56.

34) 上揭書, pp.56~57.

첫째, 駐韓美軍은 美國內 친한파를 배출시키는 役割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安保와 貿易 파트너로서 絶對 必要한 存在인 美國內에 韓國에서 服務 經驗이 있는 친한파 美國人들이 美國의 重要한 政策을 決定하거나 韓國에 對한 輿論을 形成하는 過程에서 決定的으로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고, 美國社會에 韓國을 紹介하고 홍보할 수 있는 主要 선전원을 갖게되는 것이다.

둘째, 韓國內 共產左翼勢力들의 膨脹을 제약하는 役割을 할 수 있다.

共產勢力들의 韓國內部에 對한 浸透勞力과 美國과의 關係弱화를 막아주고 있는 存在로서의 駐韓美軍은 앞으로 韓國社會가 自由民主主義 體制로 繼續 發展하는 데 크게 寄與할 것으로 期待된다.

셋째, 韓國民들의 國民意識을 先進化하는 데에 寄與하여 왔다.

駐韓美軍은 西歐 資本主義 社會의 合理主義的 思考方式과 時間概念, 秩序와 遵法 精神, 人權尊重 意識, 社會奉仕 精神 등 傳統的 儒敎社會인 韓國社會가 先進化하는 데 必要한 國民意識을 단기간내 培養하는 데 寄與하여 왔다.

第 3 章 駐韓美軍 減縮과 展望

第 1 節 駐韓美軍 減縮計劃의 背景

1. 駐韓美軍 減縮 主張의 國際 戰略的 背景

1990年代는 第2次 世界大戰 以來 지난 40여年間 “冷戰時代”로 일컬어지던 戰後 時代를 마무리 짓고 탈냉전의 “새로운 國際秩序의 時代”로 이행하는 重要한 전환기 가 되고 있다.

90年代 “脫冷戰以後 時代”에 들어와 美國은 걸프戰爭을 勝利로 이끌고 새로운 世界秩序 構築을 先導했으나 美國의 構造的 經濟 難關은 勿論, 美國 經濟力 회복의 최우선주의를 표방한 클린턴 민주당 大統領 候補의 當選으로 새로운 世界秩序 樹立 問題는 가일층 불확실해 지고 있다.

클린턴 行政府는 美國이 범세계적 役割 遂行의 基本 前提가 된다는 入場에서 새

롭게 變化되는 國際環境下에서의 美國 國際戰略에 根本的 變化를 試圖할 것으로 展望되며, 國防費 및 海外 駐屯兵力의 大幅 減縮, 役割 分擔을 통한 集團安保, 平和維持를 위한 유엔 役割의 強調 등 새로운 安保戰略의 일환으로 駐韓美軍의 減縮問題도 決定될 것이다.³⁵⁾

2. 駐韓美軍 減縮 主張의 美國內的 背景

對內外的 安保環境의 根本的 變化와 함께 美國內的 政治, 經濟 및 軍事的 安保環境도 駐韓美軍 減縮 主張의 背景으로 作用하고 있다.

즉, 美國 經濟의 生産性 落後 및 競爭力 弱化로 經濟的 主導勢力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對한 不安感과 1980年代 레이건 經濟政策으로 신데팡트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成功하였으나 엄청난 貿易 및 財政 赤字를 招來하였으므로, 世界 最大의 責務國 轉落에 따른 財政赤字 縮小를 위한 政府 支出 統制와 貿易赤字 解消를 위해 管理貿易 性格의 攻撃的 通商 政策을 繼續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³⁶⁾

따라서 國防豫算의 減縮이 不可避하고 駐韓美軍도 豫算減縮에 對備한 規模의 縮小 및 管理의 效率化 側面에서 減縮 및 再編이 不可避한 실정이다.

특히, 經濟的 民族主義에 의한 신중상주의 傾向이 짙어지고 있는 때와 같이하여 韓國에서의 反美運動은 美國에서의 反韓 感情으로 反響되면서 韓國에 對한 報復의 性格의 保護貿易 政策과 撤軍政策이 言論 및 議會에서 主張되고 있기 때문에 美國 行政府의 對韓政策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第 2 節 駐韓美軍 減縮 計劃

1. 美議會의 決議案

美國의 對韓 軍事政策의 變化는 이미 1980年代末 駐韓美軍을 둘러싼 議會의 論難에서 비롯되었다. 對外 關係에서도 우선 國內的 考慮를 앞세우는 議會 속성상, 財政赤字를 理由로 駐韓美軍의 減縮問題가 考慮되기 始作했다.

35) 外交安保研究院, 『中·長期 國際政勢 展望』(1993年版), pp.3~8.

36) 上掲書, p.31.

1989年 6月에는 美 상원의 범퍼스 민주당 의원 등 6명이 駐韓美軍 減縮法案을 提出함으로써 이같은 論議가 더욱 본격화 되었다.

1989年 7月 민주당의 년 의원과 공화당의 워너 의원이 共同으로 제출한 駐韓美軍에 대한 減縮案은 美國의 동아시아 및 韓國에 있어서의 駐屯軍事力の 位置, 戰力構造, 任務를 在評價하여야 하며, 韓·美 兩國은 駐韓美軍의 部分的, 漸進的 減縮의 必要性和 可能性에 對해 協議해야 한다는 判斷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法案은 또 議會가 다음 段階의 必要한 措置를 취할 分野를 결정할 수 있도록 大統領은 1990年 4月 1日까지 對韓 協商의 結果를 報告하고, 발효일로부터 1年以內에 追加報告書를 提出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1차 報告書에는 駐韓美軍의 地域安保 役割 必要性 與否를 包含한 駐韓美軍의 將來에 관한 5개년 計劃 등의 事項을 包含하도록 되어 있다.

駐韓美軍의 5개년 計劃에 包含할 事項으로는 駐韓美軍을 韓半島 戰爭抑制의 主導 役割에서 支援 役割로 變更하기 위한 재조정, 駐韓美軍의 直接駐屯 經費의 韓國側 分擔 增加, 韓國 國民과 駐韓美軍의 葛藤減少를 위한 美軍 人員 및 施設位置 재조정, 作戰統制權의 韓國移讓과 韓·美 유엔간의 指揮體制 變化, 軍事緊張 減少를 위한 신뢰구축 措置, 基地 韓國의 追加的 責任增大 措置 등 이다.³⁷⁾

2. 美 行政府의 駐韓美軍 減縮 計劃 및 展望

“년-워너 修正案”이 法案으로 確定됨에 따라 美 行政府는 美國의 장래계획서 (向後 5年)를 1990年 4月 1日까지 議會에 提出하기 위해, 1990年 2月 체니 國防長官이 韓國, 필리핀, 日本을 巡訪하였으며, 그 結果 同年 4月 19日 “亞·太地域의 戰略概要” 報告書를 美 議會에 提出하였다.

1990年 동아시아 戰略的 主導에 관한 報告書에서 윤곽이 드러났던 合理的인 戰力構造 調整을 위한 段階的 實行 計劃이 오늘에 와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實行 計劃에 따르면 每 段階가 끝날때마다 將來의 戰略的 狀況에 關聯된 評價를 必要로 하게 된다.³⁸⁾

37) 崔燦榮, 前揭書, pp.65~67.

38) 海軍本部, 前揭書, pp.24~38.

3段階로 區分된 報告書를 簡略히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第1段階는 戰力の 合理化 段階로서 1992年 12月 31日 以前까지 安보상 任務遂行에 危險하지 않을 水準까지 域內 軍事力 再編 및 減縮으로 ฟิล리핀에서의 美軍 철군 및 재배치, 韓國과 日本 駐屯 美軍의 減縮 등이 包含되어 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第2段階는 戰力調整 段階로서 美軍 戰力は 基本的인 戰力 水準으로 前進 配置되어 地域 指向의 이 될 것이며, 韓國에서의 2段階 兵力 調整計劃은 北韓의 核威脅에 對한 美國의 統制가 可能할 때까지 延期하도록 되어 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第3段階는 21世紀를 準備하는 段階로서 東아시아 地域에 對한 美國의 軍事的 介入은 多樣的 接近 方法을 통하여 繼續될 것이며 영구기지 없이도 美國이 域內 安定에 寄與할 수 있는 訓練實施도 繼續될 展望이다.

駐韓美軍에 관한 協議는 체니 美 國防長官 巡訪 중인 1990年 2月 15日 서울에서 開催된 韓·美 國防長官 會談에서 具體化되었다.

이 會談에서 〈圖表 3-1〉 3段階 駐韓美軍 再調整 計劃³⁹⁾ 에서 보는 바와 같이 駐韓美軍 減縮 및 役割 變更事項을 3段階로 區分하여 漸進的으로 推進하기로 合議 하기에 이르렀다.

〈圖表 3-1〉 3段階 駐韓美軍 再調整 計劃

調整段階	期 間	戰略調整 및 減縮內容
1段階	9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政 間接 費用 節減, 韓國軍이 맡을 수 있는 일부 任務의 移讓을 통해 既存 軍事力을 效率化 ○ 第1步兵師團의 地上戰力 現代化로 一部 效率化가 뒤따르나 2師團 戰鬥能力은 그대로 견지 ○ 92년까지 空軍 2천명과 地上軍 약5천명 등 7천명을 減縮 ○ 北韓의 威脅 在評價 및 1段階 實績을 點檢, 2段階 새 目標을 설정

39) 田一平, 前掲書, p.37.

調整段階	期 間	戰略調整 및 減縮內容
2段階	9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師團 兵力 構造의 再調整 및 감축 ○ 減縮規模는 南·北韓 關係 및 韓國 軍事力 增強 程度에 左右되며 美國의 抑止能力과 意圖를 北韓이 오관하지 않도록 하는 範委內에서 漸次 增大
3段階	96~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이 主導的 役割을 맡고 美軍은 支援 役割 擔當 ○ 抑止力 維持에 必須的인 美軍 駐屯 規模를 더욱 줄이고 여타 兵力은 撤收 考慮

3段階 駐韓美軍 再調整 計劃의 施行을 위해 1990年 11月 14日 워싱턴에서 開催된 12次 韓·美 軍事委員會議(MCM)에서는 1段階 期間(90~92)중 施行될 駐韓美軍의 減縮은 非專門要員 爲主로 地上軍 5,000명과 駐韓 美 空軍基地 재조정으로 인한 空軍兵力 2,000명으로 決定되어 1993年 3月 現在 6,987명이 감축되었다. ⁴⁰⁾

1段階 措置事項으로서 1991年 3月 25日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 委員會 首席代表가 韓國軍 장성으로 交替되었고, 同年 10月 1日에는 美2師團이 擔當하던 군사정전위 本部 區域 유엔군측 “을” 區域의 警戒責任과 GP(경계초소) 2個所중 1個所를 韓國軍이 引受하였으며, 1992年末에는 판문점 共同警備區域(JSA)內 美軍兵力 100명을 韓國軍으로 對替하였다.

또한 韓·美 兩國은 서울 北方의 野戰司令部로서 主要한 防衛役割을 擔當해 오던 韓·美 野戰軍司令部(CFA)를 1992年 7月 1日부로 解體하였고, 아울러 지금까지 聯合司令部官이 兼職하고 있던 地上構成軍司令部(GCC) 司令部官을 1992年 12月 1日부로 한국측 장성으로 보임하였다. ⁴¹⁾ 그리고 1993年 11月 4日 서울에서 폐막된 第25次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는 現在 韓·美 聯合司令部官에게 賦與된 指定된 韓國軍 部隊에 對한 平時作戰統制權을 94年 12月 1日부로 韓國 合參議長에게 移讓하기로 合

40) 海軍本部, 前揭書, p.38.

41) 國防部, 前揭書(93~94), p.103.

議하였다. ⁴²⁾

第2段階 戰力調整이 끝나는 1995年 12月, 韓國에서의 美國 戰鬪兵力 規模는 1개 機械化旅團과 1개 戰鬪空征旅團을 包含하는 第2步兵師團 그리고 1개 戰鬪飛行大隊의 戰力水準인 第7空軍으로 構成되는 최소한의 戰力水準을 維持하도록 計劃되어 있다.

하지만 2段階 戰力調整 問題는 1991年 11月 체니 美 國防長官이 北韓의 核武器 開發을 둘러싼 危險과 不安이 사라질 때까지 計劃되어 있던 韓半島에서의 第2段階 兵力 減縮 問題를 延期할 것임을 公式 發表했으며, ⁴³⁾ 1993年 11月 4日 폐막된 第25次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는 美國은 韓國民이 원하지 않는 한 그리고 北韓 核 問題가 完全 解決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駐韓美軍 2段階 減縮을 繼續 留保키로 하고, 나아가 韓半島가 外部로부터 침공을 받을 境遇 韓·美 相互防衛條約에 따라 美國이 卽刻 支援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⁴⁴⁾

現在의 狀況은 아직도 이 地域에서 美國은 적의 침공에 신속히 對抗할 수 있는 代表的인 戰力으로 되어 있으며 支援能力과 병참 그리고 기간 施設 등으로 이루어진 支援的인 면과 戰鬪能力인 면 양쪽 모두에서 철군 理由를 찾기 어려운 狀況이다.

1996年 着手 豫定인 第3段階에서 實行할 美國의 戰略 概念은 現在 基本的으로 維持되고 있는 美軍 全體의 戰力 構造를 適合한 水準으로 調整한 후 아·태 地域內 駐屯을 實行하면서 21世紀를 準備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地域에서 美國이 繼續 歡迎받을 때까지 適正 水準으로 維持할 計劃이며, 現在 韓國과 日本에 駐屯중인 戰力은 適當한 水準인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는 北韓으로부터의 威脅, 이에대한 挑發 抑制 條件 및 美軍戰力의 潛在的 役割 등에 따라 이곳에서의 戰力維持 問題가 決定될 것으로 전망된다. ⁴⁵⁾

42) 『朝鮮日報』, 1993. 11. 5日字, 3面.

43) 海軍本部, 前揭書, p.34.

44) 『每日新聞』1993. 11. 5日字, 3面.

45) 海軍本部, 前揭書, p.35.

第 4 章 駐韓美軍 役割變更에 따른 對備策

第 1 節 駐韓美軍 減縮의 當面課題

1. 韓·美 同盟關係 再調整 課程에서의 課題

韓·美 同盟關係에서 韓國의 위상이 漸次 增高되는 方向으로 變化가 不可避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1990年代는 이를 위한 새로운 挑戰과 克服의 時代가 될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1990年代의 韓·美 同盟關係 再調整 過程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⁴⁶⁾

가. 駐韓美軍의 駐屯目的이 戰爭抑制을 위한 引繼鐵線으로서의 役割에 있다면 現在規模의 3만 6천명이 必要한가?

나. 韓半島의 戰爭抑制에 美國의 戰術核이 반드시 必要한가? 즉, 韓·美 在來式 同盟軍事力만으로 北韓의 南侵을 抑制할 수는 없는가?

다. 韓國軍에 對한 美國의 戰·平時 作戰統制權 保有가 지금도 必要한가?

라. 南·北韓間의 對話 및 統一勞力에 對한 駐韓美軍의 役割은 어떻게 規定하여야 하는가?

마. 지난날 韓國防衛에서 주된 役割을 擔當해온 駐韓美軍이 앞으로 韓國軍에 對한 補助的 役割만을 遂行해야 한다면 適正 規模의 美軍은 어느 程度이며 그 戰力構造는 어떠해야 하는가?

바. 韓·美 聯合司令部(CFC)의 機能을 現在の 戰爭遂行機構로 尊屬시켜야 하며, 또한 유엔 司令部와 정전체제는 어떻게 現實에 맞게 發展시켜야 하는가?

사. 適正水準의 防衛費 分擔額은 얼마이며, 韓國側의 防衛費 分擔增額 計劃은 무엇인가?

아. 人口 1千萬의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龍山基地가 타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면 어느나라의 費用負擔으로 어떠한 計劃下에 이전되어야 하는가?

자. 팀스피리트 訓練 등 現在の 韓·美 聯合訓練은 現在の 規模로 繼續해야 하는가?

46) 車永九, “駐韓美軍의 將來와 韓國의 安保,” 『外交』 第13號(1990. 3), pp. 23~25.

차. 韓·美間에 締結된 지난날의 各種協定 등에 修正補完을 요하는 것은 없으며, 있다면 어떤 方向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이들 가운데 어떤것은 兩國政府에 의해 이미 研究 혹은 交涉中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美議會, 學界 또는 韓國內의 一部 在野運動圈에서 主張되는 것도 있지만, 제기된 背景과 理由가 長期的인 次元에서 韓·美 軍事關係의 發展方向을 照明하기 위해 앞에서 列擧한 이슈를 一旦 受容하여 檢討의 對象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駐韓美軍 關係 主要 懸案

駐韓美軍과 關聯된 이슈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지금까지 다룬 撤收 또는 감축의 問題이다. 그러나 最近 이 問題 以外에도 여러가지 이슈들이 生成되고 論議되어 왔는데 이들에 對한 檢討는 除外하고, 駐韓美軍 減縮과 關聯된 여러가지 懸案중에서 가장 重要的 作戰統制權 移讓 問題와 防衛費 分擔 問題를 具體的으로 分析하기로 한다.

가. 作戰統制權 移讓

韓國의 安保에 있어서 駐韓美軍의 役割이 컸던 것은 事實이나 韓·美 安保關係를 볼 때 恒常 爭點이 되어 온 것은 바로 聯合司令官이 가지고 있는 作戰統制權 問題이다.

1950年 7月부터 유엔군 司令官에 의해 行事되어 온 韓國軍에 對한 作戰統制權이 1978年 11月 韓·美 聯合司令部가 創設되면서 兩國 國家統帥 및 軍事指揮機構로부터 戰略指示를 받아서 韓·美 聯合司令官이 作戰統制하도록 調整되었지만, 韓·美 聯合司令官職을 美軍이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作戰統制를 美軍으로부터 받는다는 誤解의 소지가 있기도 하며, 主權國家로서 他國軍 司令官으로부터 作戰統制를 받는 것은 問題가 된다고 본다.⁴⁷⁾

最近들어 作戰統制權을 韓國軍에게 移讓하는 問題가 擡頭되어 1993年 11月 4日 閉幕된 第25次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 現在 韓·美 聯合司令官에게 賦與된 指定된 韓國軍 部隊에 對한 平時作戰統制權을 1994年 12月 1日부로 韓國合參議長에게 移讓하기로 合議하였으며, 兩國 國防長官은 韓·美 軍事委員會에 圓滑한 保章을 하

47) 田一平, 前掲書, p. 15.

도록 指示하였다.⁴⁸⁾

韓國의 作戰統制權이 美軍 司令官에게 移讓된 것은 1950年 7月 12日 이승만 大統領과 무초 駐韓 美 大使간의 所謂 “大田協定”에 따른 것이며, 7月 14日 이승만 大統領이 “現 敵對行爲 狀態가 持續되는 동안 韓國軍에 對한 作戰指揮權을 유엔군 司令官 맥아더 將軍에게 委任한다.”는 공한을 맥아더 將軍에게 발송하면서 確約되었다. 그러다가 韓國戰爭이 종식되고 韓·美 相互防衛條約이 準備되는 過程에서 條約이 발효되면 作戰權을 移讓한다는 原則이 韓·美間에 確認되었으며, 1954年 7月 이승만 大統領이 美國을 訪問했을 때 韓·美 合議議事錄에서 “自由世界の 自由鬪爭에 兩國에 利益이 되는 한 作戰統制權을 유엔軍 司令官에게 移讓한다.”는 것을 再合議하고 歸國후 同年 11月 17日 서울에서 “韓國에 對한 美國의 軍事 및 經濟援助에 관한 韓·美 合議議事錄”에 署名하였다. 이때 作戰指揮權이라는 用語가 作戰統制權으로 變更되어 純粹 作戰權에만 限定되어 權限의 範圍가 縮小되었다.

그후 민주당 政權도 이를 確認하고 5.16 軍事革命이 일어난 直後에도 이를 再確認하였으나 1961年 5月 26日 共同聲明에서는 “外部的 共產侵略으로부터 防衛함에 있어서만 韓國軍에 對한 作戰統制權을 行事할 수 있다.”라고 하여 美軍司令官의 權限을 더욱 制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韓國은 獨自的으로 對間諜作戰을 비롯하여 國內 治安秩序 및 警備 任務에 韓國軍을 獨自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美軍司令官이 갖고 있는 作戰統制權은 作戰 遂行上의 責任만을 意味하며 其他 軍需 行政上의 責任은 韓國軍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軍司令官의 權限은 共產侵略으로부터 大韓民國을 防衛하는 데만 局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이 自國의 軍隊에 對한 作戰統制權 全部를 美軍司令官에게 넘겨주고 있어 主權國家로서의 體面에 심대한 損傷을 주고 있다는 主張은 多少 不合理한 것이며 실제로는 韓國軍의 平時 指揮와 教育訓練에는 韓國이 獨自的인 權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作戰統制權에 對한 基本的인 問題는 韓國軍에 對한 作戰統制를 韓國側의 意圖대로 施行할 수 없다는 것과 韓國戰爭時 美軍에게 移讓된 作戰統制權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48) 『每日新聞』, 1993. 11. 5日字, 3面.

勿論 韓·美 聯合 指揮體制를 維持함으로써 戰爭 抑制와 東北亞 平和維持라는 肯定的인 側面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問題點도 없지 않다.⁴⁹⁾

첫째, 自主獨立國家로서 大韓民國이 自國軍에 對한 作戰統制權을 우리 意圖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國家 위상 및 國民感情에 損傷을 주고 있다.

둘째, 作戰統制 部隊의 規模面에서의 不均衡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韓國軍 部隊를 作戰統制하는 데 비해 平時에 聯合司令官이 作戰統制할 수 있는 部隊는 高공정찰 任務를 遂行하는 駐韓美軍의 F-15 전투기 2대 뿐이다.

셋째, 韓國軍의 軍事力 建設에서 地上軍에 비해 海·空軍이 相對的으로 規模가 적으며 指揮統制體制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넷째, 2원적인 指揮體制로 作戰의 效率性 그리고 緊急事態時 部隊運用에 있어서의 意見 不一致 可能性 등이다.

다섯째, 國家威信 및 指揮問題이다. 駐韓美軍의 存在와 聯合司令官의 作戰統制權 保有는 北韓으로 하여금 韓國을 除外하고 直接 對美 協商을 主導할 구실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韓國軍이 作戰統制權을 환수할 境遇 韓·美間에 交換된 公汗, 合議, 聯合司 創設 當時의 戰略指示 등에 관한 法律的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作戰統制權 移讓에 관한 問題는 이미 1994年 12月 1日부로 平時作戰統制權을 移讓 받는 것으로 韓·美間에 協議가 되었으나, 作戰統制權의 移讓을 中心으로 한 現行의 韓·美 聯合 防衛體制의 改善은 다음과 같은 여건의 變化 즉, 北韓의 南北政策 轉換과 北韓 軍事威脅의 源泉의 消滅, 駐韓美軍 戰鬥部隊의 安全撤收 및 유사시 美 增員軍의 投入期待 因難, 韓國의 獨自의인 防衛 能力確保 등이 先行되어야 한다.

平時作戰統制權 移讓을 위해 兩國의 高位 將星級 5명씩으로 構成된 협의회가 具體的인 平時作戰統制權 移讓時期 決定을 위해 지난 8月 非公式的으로 運營되어 왔는데 빠르면 1994年 4月까지 平時作戰統制權을 환수할 合同參謀本部 및 韓·美 聯合司의 役割 調整, 戰時 및 平時概念 再定立 등 移讓에 따른 細部計劃案을 마련할 計劃이다.⁵⁰⁾

따라서 어떤 方法을 택하던 間에 韓·美間에 긴밀한 協力하에 作戰統制權 이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韓國側으로서는 作戰統制權 引受를 위하여 合참의 功能 強化로

49) 田一平, 前掲書, p. 15.

50) 「每日新聞」, 1993. 11. 5日字, 3面.

戰爭企劃 및 作戰指揮能力 向上, 유엔군司令部的 尊屬 與否에 관한 法律的 考察, 危機管理 및 戰時 轉換體制 確立, 指揮·統制·通信 및 情報體制確立에 관한 對策을 樹立 施行하여야 할 것이다.

나. 防衛費 分擔

駐韓美軍 撤收問題는 過去부터 韓·美間에 主要 縣案으로 論議되었지만, 1980年代 以後 防衛費 分擔問題는 韓·美 安保協力 關係에 있어서 重要的 課題로 登場하였으며, 每年 韓·美 年例 安保協議(SCM) 및 韓·美 軍事委員會(MCM)의 主要의제가 되었다.⁵¹⁾

防衛費 分擔은 同盟國들이 共同威脅에 對處하기 爲해 各기 自國의 能力에 따라 責任과 役割 그리고 이에 隨伴되는 費用을 公正하게 分擔한다는 넓은 의미의 防衛 分擔의 核心 部分이다.

美國은 1980年代 중반 以後 累積되는 財政赤字를 解消하기 爲한 方便으로서 國防費의 節減을 推進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美軍이 駐屯하고 있는 同盟國에 美軍 駐屯 費用의 分擔을 을 제고시키기 爲해 勞力하고 있다. 특히, 1991年 걸프事態는 美國의 이러한 要求를 世界的으로 擴散시키고 正當化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⁵²⁾

防衛費 分擔이 韓·美 安保協力の 主要 縣案으로 제기된 것은 1980年代 後半이 며, 우리는 韓·美 同盟關係 形成에 의해 <圖表 4-1> 駐韓美軍 支援 現況⁵³⁾에서 보는 바와 같이 駐韓美軍 駐屯을 爲한 支援을 繼續 提供해 왔다.

<圖表 4-1> 駐韓美軍 支援現況(1989年)

(單位 : 백만달러)

費用要素	內 容	間 接 費	直 接 費
不動產 支援	土地, 施設 提供	1,596	306
人 力 支 援	카투사, 勞務團 및 警戒支援 人力	203	4.1
運營維持費支援	美 軍事支援團 經費, 韓·美 聯合司 豫算		4.2
CDIP 支 援	聯合防衛 增強 事業		40
軍 需 支 援	彈藥貯藏管理, 油類支援, 用役費 等	286	48.4
韓國軍施設提共	訓練場, 射擊場, 航空管制 支援	33	
減 免 惠 澤	關稅, 通行稅, 遞信, 公共料金割引 等	101	
小 計		2,219	402.7
計		2,621.7	

51) 田一平, 前掲書, p. 32.

52) 國防部, 前掲書(93~94), p. 104.

53) 國防部, 『國防白書 90~91』(서울 : 國防部, 1990), p. 170.

1953年 締結된 韓·美 相互防衛條約과 1966年 締結된 駐屯軍 指揮協定(SOFA)에 依據하여 駐韓美軍에게 土地와 施設을 公여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는 聯合戰鬪 準備態勢 強化와 韓半島 戰爭 억지력 제고를 위하여 韓國이 土地와 시설을 提供하고 美國이 武器體系와 裝備 및 技術을 提供하는 聯合防衛增強產業(CDIP)를 始作했다.⁵⁴⁾

1980年代 初부터는 自國軍 사용분은 自國이 負擔한다는 原則에 따라 聯合司와 野戰司의 運營費 등을 分擔해 왔고, 카투스(KATUSA) 支援과 더불어 駐韓 美合同軍 事業武團(JUSMAG-K)에 對한 運營維持費를 支援하고 있다. 또한 1980年代 後半부터는 駐韓美軍 駐屯經費 支援 性格의 防衛費 分擔問題가 安保協議會議에서 本格的으로 協議되기 始作하여 1989년에는 4천 5백만 달러, 1990년에는 7천만 달러, 1991년에는 1억 5천만 달러, 1992년에는 1억 8천만 달러가 각각 支出되었으며, 1993年度에는 人건비 支援을 包含하여 戰爭豫備物資 貯藏管理, 裝備 整備, 聯合防衛 活動, 軍事建設, 聯合防衛增強事業의 6개 分野에 總 2억 2천만 달러를 支援하기로 合議하였다.⁵⁵⁾

또한 1993年 11月 4日 閉幕된 第25次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 韓·美 兩國은 1994年 駐韓美軍의 防衛費 分擔額을 2억 6천만 달러로 合議, 國防費 分擔額이 지난해의 2억 2천만 달러보다 18%(달러화 기준) 늘어났다.⁵⁶⁾

美國은 最近 國際安保 環境 變化와 財政赤字 解消 次元의 國防豫算 縮小로 海外 駐屯 政策의 調整을 推進하고 있으며, 이같은 課程에서 駐屯國의 防衛費 分擔 增額을 強調해 오고 있다.

防衛費 分擔은 1978年 韓·美 聯合司 創設 以來 어김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對韓 軍事販賣借款(FMS)이 끝난 1986年 以後로는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의 最大 관심사가 되어 왔다.

防衛費 分擔要求는 “駐屯軍 支援 協定”이라든가, “戰時 駐屯軍 支援 協定”과 같은 것을 同盟國에 要求하는 形態로 進行되며, 우리나라는 1987年 第19次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 戰時 駐屯國 支援協定에 관한 양해각서에 署名했다.⁵⁷⁾

現 防衛費 分擔의 基準은 1991年 第23次 安保協議會議에서의 韓·美間 중기 分

54) 田一平, 前揭書, p. 37.

55) 國防部, 前揭書(93~94), p. 105.

56) 『朝鮮日報』, 1993. 11. 5日字, 3面.

57) 田一平, 前揭書, pp. 37~38.

擔目標에 對한 合議事項에 基礎하고 있는데, 當時 韓·美 兩國은 1995년까지 駐韓美軍 現地發生費用의 1/3을 負擔하기로 合議하였으나, 그 以後에는 한반도 內外 安保狀況과 駐韓美軍의 規模 및 韓國 政府의 負擔能力 등을 綜合적으로 考慮하여 韓·美 兩國의 國家利益이 一致되는 適正 水準에서 分擔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⁵⁸⁾

우리나라는 第25次 安保協議會議에서 1994년에 2억 6천만 달러를 支援하기로 合議했는데, 이는 우리의 分擔能力和 駐韓美軍을 必要로 하는 우리의 特殊한 安保環境을 充分히 考慮한 것이다.

主要 支援分野는 戰爭 豫備物資 貯藏管理, 裝備 整備, 聯合防衛 增強產業, 駐韓美軍 韓國人 雇傭員 인건비 一部支援 등이다.

특히, 인건비 支援은 1991年 2月 駐屯軍 支援協定(SOFA)에 관한 特別協定이 締結됨으로써 법적인 根據가 되었고, 現在 韓·美 兩國은 防衛費 分擔의 重要성을 相互 認識하고 防衛費 分擔事業의 效率적인 執行과 管理를 위하여 共同實務委員會를 運營하고 있다.

韓國이 主權과 平等은 더 많이 獲得하는 代身에 美國이 要求하는 防衛費 분담에 對해서는 讓步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이 問題에 對해서는 原則적으로 韓國은 對北韓 抑止力에 보탬이 되는 範圍내에서 美軍의 駐屯과 整備 및 其他 병참지원을 財政적으로 支援해야 하며, 그 테두리를 넘어서 美國의 범세계 및 地域적인 役割에 對해서 軍비를 負擔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參加야 할 것이다.⁵⁹⁾

韓國의 防衛費 分擔은 將次 費用分擔의 增額과 더불어 役割分擔까지 擴散될 展望이다. 따라서 韓國은 經濟力에 걸맞는 對處가 要求되는데, 短期的으로는 地域에서의 役割 分擔은 피하고 CDIP와 같은 分野에 協力を 통하여 韓·美 연합방위태세를 強化해야 할 것이다. 또 방산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從來 駐韓美軍이 韓半島에서 對北韓 抑止 次元에서 遂行해온 役割의 對替를 통해 自主國防 確立에 主力하여 앞으로 있을 駐韓美軍의 減縮 및 撤收에 對備해야 할 것이다. 長期的으로는 安保綜合 政勢를 擔當하는 機構의 設置 등 制度的 方法을 模索하고 防衛費 分擔의 必要성과 正當성을 國民들에게 積極 홍보해야 할 것이다.⁶⁰⁾

58) 國防部, 前揭書(93~94). p. 105.

59) 安丙俊, 『強大國關係와 韓半島 安保論』(法文事, 1989), p. 501.

60) 田一平, 前揭書, pp. 38~39.

結局 防衛費 分擔이라는 概念은 엄밀한 의미에서 公正한 分配에 있는 것이 아니라 安保協力 體制의 強化를 위한 政治的 協商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向後 韓·美 安保關係의 核心的 課題가 될 國防費 分擔 問題에 있어서 政治的 目標와 原則의 合議속에서 同盟體制의 強化라는 方向으로 摸索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同盟體制의 強化를 통해 美國의 離脫 政策에 따른 힘의 空白을 對替하고 自主國防 體制 確立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第 2 節 駐韓美軍 減縮 主張에 對한 對應 方案

1. 北韓의 駐韓美軍 撤收 主張과 對應 論理

가. 北韓의 駐韓美軍 撤收 主張

北韓은 駐韓美軍이 그들의 安保에 威脅이 되고 全韓半島 共產化 戰略에 障碍가 된다는 認識하에 駐韓美軍 撤收를 繼續 主張해 오고 있다.

北韓이 駐韓美軍 撤收 主張에서 名分으로 提示하고 있는 論理를 整理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⁶¹⁾

첫째, 南北統一은 勿論 南北對話의 前提條件으로서 駐韓美軍이 撤收되어야 한다.

둘째, 韓半島 戰爭 危險을 除去하기 위해 駐韓美軍을 撤收시켜야 한다.

셋째, 駐韓美軍은 民族自決權을 유린하는 등 國際法 原則의 違反이다.

넷째, 駐韓美軍은 7.4 共同聲明 原則에 違背된다.

다섯째, 駐韓美軍은 모든 外國軍의 撤收를 豫見한 休戰協定에 違反된다.

여섯째, 駐韓美軍의 韓國駐屯 根據가 되고 있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은 不法적인 것이다.

일곱째, 駐韓美軍의 撤收는 時代的 要求이다.

한편 左翼勢力 또한 여기에 편승해 美國은 “解放者, 救援者가 아닌 또 다른 支配者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또한 “美國은 分斷을 통하여 韓半島를 支配하고자 하는 分斷의 元凶이며, 統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면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駐韓美軍이 撤收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左翼勢力의 主張을 分析해 보면 北韓의 對南赤化戰略과 맥을 같이 하

61) 崔燦榮, 前掲書, pp. 96~97.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北韓의 駐韓美軍 撤收 主張 底意

北韓의 對南戰略 戰術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提議나 行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特徵은 모든 것에 駐韓美軍의 撤收가 前提 條件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直接 駐韓美軍의 撤收를 目標로 하고 있는 데 그 底意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駐韓美軍이 存在하는 한 決定的인 時期가 도래해도 武力南侵에 의한 적화 통일이 어렵다는 認識하에 駐韓美軍의 撤收를 實現하는데 目的이 있다.

둘째, 1960年代 以後 推進해온 南朝鮮 革命戰略의 일환인 南朝鮮에서의 革命力量 強化는 韓國의 現存政府를 전도하고 駐韓美軍을 遂出한 狀態에서 容共政府가 設立 되어 北韓과 合作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고 또 國際舞臺에서의 革命力量強化 역시 駐韓美軍이 帝國主義的 侵略으로써 韓國을 強點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림으로써 美國을 困境에 빠뜨리고 駐韓美軍을 撤收하도록 壓力을 가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

셋째, 北韓은 對內的 政治的 觀點에서 김일성이 北韓社會를 動員하고 北韓住民을 統制하며 住民들의 生活水準을 犧牲시키면서 軍事力を 增強하는 理由를 南朝鮮 解放에서 찾았으나, 그 實現이 멀어져가는 視點에서 그들이 내적으로 公約 韓半島 公산화 統一을 實現하지 못하는 理由를 說明해야 하므로, 駐韓美軍 撤收에서 그 理由를 찾고 駐韓美軍을 利用함으로써 統一問題에 對한 그들의 弱점을 國內政治的으로 利用하고 辯明하려는 것이다.

다.北韓의 駐韓美軍 撤收 主張에 對한 對應 論理

北韓의 駐韓美軍 撤收 主張과 底意에 對한 우리의 對應 論理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駐韓美軍 撤收가 統一對話의 前提 條件이라는 데 對하여 美軍이 우리의 統一政策 樹立이나 進行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우리 要求에 의해서 언제든지 撤收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 北韓이 統一을 위한 南北 對話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韓半島 戰爭危險의 原因으로서 駐韓美軍 撤收主張에 對해서는 韓半島 戰爭危險은 北韓이 軍事力を 繼續 增強시키고 있는 한 상존하며 韓國과 美國은 全的으로

로 防禦的인 戰略에 立脚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1992年 현재 北韓의 軍事力은 量的으로는 韓國의 약 2배, 戰力指數로는 약 1.3배의 대남우위의 戰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英國 國際戰略研究所에 따르면 北韓의 定規兵力이 113만 2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으로⁶²⁾ 軍事力 比較面에서 北韓側이 훨씬 優勢한 入場에 있음으로 이를 韓國水準으로 減縮하고 남북한간에 신뢰회복 措置가 이루어지면 駐韓美軍은 當然히 撤收될 것이다.

셋째, 駐韓美軍이 국제법상의 違反이라는 主張에 對하여 앞에서 說明한 유엔군과 駐韓美軍의 派兵經緯의 說明으로 합법성이 充分히 理解될 수 있다.

넷째, 7.4共同聲明 原則의 違背라는 主張은 그것이 統一의 原則이지 國防의 原則은 아니라는 점에서 理解하고 北韓이 攻擊的인 姿勢를 緩和하고 성실한 姿勢로 신뢰를 쌓아가면 韓國에서 駐韓美軍을 繼續 駐屯시킬 理由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美軍의 韓國駐屯이 休戰協定の 違反이라는 主張은 美軍이 撤收하면 協定當事者로서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結果가 招來된다. 그것은 美國이 휴전협정의 遵守를 監視할 법적인 責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對美 平和協定 締結이나 3者會談을 갖자는 등의 提案과도 상반된 것이다.

여섯째, 韓·美 相互防衛條約이 不法的이라는 主張은 어떤 國家도 自由로이 外國과 條約을 맺을 權利가 있고 이를 干涉하는 것 自體가 不當한 內政 干涉이며, 反對로 韓國이 北韓과 外國間에 맺고 있는 條約의 파기나 內容 變更을 一方的으로 要求하면 여기에 北韓 역시 順應할 수 없을 것이다.

일곱째, 時代的 要求로서의 駐韓美軍 撤收 主張은 한 國家의 防衛를 自身이 擔當하는 것은 時代的 要求이며, 駐韓美軍은 바로 戰爭을 抑制하기 위한 時代的 要求에 따라 駐屯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바로 北韓 스스로 만든 것이다.

結論的으로 北韓이 武力赤化路線을 拋棄하고, 緊張을 緩和하여 戰爭再發을 防止하기 위한 効果的인 措置를 취하면서, 성실한 姿勢로 南北對話에 임해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가면 駐韓美軍은 段階的으로 撤收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狀況이 오기를 우리가 보다 더 希望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62) 東亞日報社, 『東亞年鑑』(東亞日報社, 1993. 4. 1), p. 201.

63) 崔燦榮, 前揭書, pp. 99~101.

2. 駐韓美軍 減縮 主張에 對한 對應 方案

韓國으로서 바람직한 方法은 韓國軍이 強化되어 自主國防을 이룩할 수 있는 時期에 맞추어 駐韓美軍을 漸進的으로 部分減縮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判斷되며, 該 境遇 初期에는 南北韓間에 軍費競爭의 樣相이 惹起될지 모르지만 北韓의 經濟力과 신데탕트의 國際政勢 影響 등으로 北韓이 軍축에 응할 可能性이 있다.

또한 먼저 北韓의 軍축에 連繫되는 철군 구상을 北韓에 주지시킴으로써 南北韓의 軍費縮小를 誘道하는 方向으로 活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美國이 어떠한 減縮 方法을 택하건 美國의 對韓 防衛公約은 不變의 것임을 確認시킬 必要가 있으며, 該 爲기 爲해서는 잔류미군의 配置가 現在와 같은 北韓의 主南침 通路에 位置함으로써 繼續 引繼鐵線의 自動介入 機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減縮協商에서의 또다른 主要爭點은 防衛費 分擔問題가 될 것인 바 直接費用에 對한 美國의 要求는 經濟能力을 誇大評價한데서 發生할 뿐만 아니라, 韓國이 美軍의 餘하한 形態의 減縮도 反對하리라는 假定下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에 是 現實的인 對應이 必要하다.

中·長期的으로 駐韓美軍의 撤收가 不可避하다면 차라리 防衛費 分擔보다는 韓國軍의 長期的 軍事力 強化에 投資함으로써 自主國防의 時期를 앞당기는 극단적인 選擇도 考慮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駐韓美軍 減縮이 美國의 對外的 安保環境의 變化에 따른 不可避한 措置라 할지라도 韓·美 兩國間의 政治的, 經濟的 關係를 好轉시키면 駐韓美軍의 減縮을 尙당 期間 유예시킬 수 있으며, 韓國의 安保를 해치는 方向으로 급속히 履行되는 것을 豫防할 수 있을 것이다.

結局 駐韓美軍의 減縮主張에 對한 對應 方案은 韓國의 安保와 韓·美 關係를 해치는 方向으로 展開되지 않도록 相互協商에 따른 漸進的 部分減縮으로 誘道하며, 美國의 國防 豫算 減縮에 따른 美 軍事力의 輕量化, 機動化 및 管理의 效率化에 따른 駐韓美軍의 漸進的 部分 減縮 및 部隊 構造 改編에 現實的으로 對應하여 自動介入 機能을 保有토록 하고, 政治의 民主化와 經濟의 先進化를 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戰略的 重要性을 스스로 높여야 하고, 反美 感情과 經濟 摩擦이 安保를 해치고 있음에 有意여 이의 解決에 焦點을 맞춘 對美政策을 追求해 가야 할 것이며, 該

게 함으로써 長期的으로 包括的이며, 相互 보완적인 安保關係가 形成될 것이고 韓·美 友邦關係는 敦篤히 發展될 것이다.

第 3 節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對應 방안

1. 駐韓美軍의 將來와 韓·美 關係

美 國防省이 議會에 提出한 “1992年度 아시아·太平洋 地域 戰略 安保 環境 分析” 報告書는 구소련의 崩壞로 인한 世界秩序 再編 및 安保環境 變化 속에서도 繼續的인 主導權을 維持하기 위한 美國의 安保戰略 政策의 方向을 提示하고 있다.⁶⁴⁾

이 報告書에는 北韓이 核武器 開發 및 軍費擴張 意圖를 拋棄하지 않음으로써 韓半島 安保政勢上 深刻한 威脅을 던져주고 있는 이때에 駐韓美軍의 兵力減縮 및 東北亞 駐屯 美軍의 戰力 調整 問題 등 最近의 이 地域 安保懸案을 다루고 있으며, 1990年 “년－워너 修整案”에 따른 美國防省 1次 報告書의 內容과 關聯하여 再確認된 自體 評價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⁶⁵⁾

美國의 亞·太地域에 對한 介入은 地域 安保와 安定에 있어서 確實한 接近方法이며, 美國의 前進 配置 戰力은 域內 安定의 確固한 基礎가 되고 美國으로 하여금 地域 均衡者 또는 正直한 仲裁人으로서의 독특한 役割을 遂行하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亞·太地域의 安定은 美國과 同盟國에 있어 國家的 運命과 直結된 重要한 國익의 要素로서 寄與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은 이렇게 廣範圍하고 複雜한 그러나 活氣에 넘치고 있는 이 地域의 未來를 保障하기 위한 役割을 遂行할 수 있고 또 遂行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 地域에서의 美 地上軍 및 空軍 駐屯問題를 計劃하는 過程에서 美軍은 紛爭發生時 既存의 主導的 役割에서 支援者 役割로 轉換하게 될 것이다. 自力 防禦 問題에서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게 된 韓國軍의 役割 變化는 美國의 長期 戰略上 作戰權과 關聯된 韓國側의 要求 등을 反映하는 것이된다. 개전시 韓國軍의 防禦를 支援하기로 되어 있는 前進 配置 美軍의 平時 駐屯 兵力에 對하여 앞으로 長期間에 걸쳐 얼마간의 減縮이 이루어질 展望이다.

이에 追加하여 美國은 韓·美 聯合構造로의 改編과 “主導的 役割에서 支援的 役

64) 海軍本部, 前揭書, p. 1.

65) 上揭書, pp. 4~5.

割”로의 役割 變更에 적응함과 同時에 韓國軍의 戰力增強 事業에 對한 支援도 繼續할 豫定이다. 그 한예로 팀 스피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 독수리 訓練 등의 聯合 訓練과 練習의 實施를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예로는 危機 發生時 戰鬪力 發揮을 위한 戰力 發展 事業과 關聯하여 韓國軍의 武器體系의 獲得과 生産에 對한 積極的인 協力을 提供하는 것이다.

“役割 變更”을 위한 戰略은 短期間에 完全한 目標達成을 이루기에는 時間的 餘裕가 不足하다는 점을 認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戰略 및 作戰上의 정보와 戰略空軍과 신속대응 戰術空軍의 確保, 海軍으로부터의 支援 그리고 지상군 戰力 등과 같은 軍事作戰 能力을 繼續 確保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美國은 韓國國民과 政府에서 美國을 繼續 원하며 平和定着 및 安定維持에 威脅이 사라질 때까지 繼續 韓國에 美軍을 駐屯시킬 計劃이다. 이에 對한 앞으로의 調整 作業은 이 地域내 緊張 減少 趨勢가 進展됨에 따라 이루어질 展望이다.

結局 北韓에서 開放·改革 등 괘목할만한 變化가 일어나 대남 軍事威脅이 현저하게 減少하거나, 韓國君의 戰力이 計劃대로 增強되어 당초 目標대로 1990年代 중반에 北韓에 대해 억제력을 갖게 될 境遇 駐韓美軍의 追加減縮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볼 때, 北韓의 核武器 開發에 따른 問題가 解決된다면 1990年代 後半 駐韓美軍의 위상은 規模面에서 상당 部分 減縮되고, 役割面에서도 抑制를 위한 支援者 役割 정도로 縮小될 것으로 展望된다.⁶⁶⁾

駐韓美軍의 減縮에 따라 이루어질 實質的인 “韓國防衛의 韓國化”는 곧 韓·美 聯合指揮體制에 對해 本質的인 變化를 招來할 것이다. 즉, 美國은 이미 서울 北方의 野戰司令部로서 主要한 防衛役割을 擔當해 오던 韓·美 野戰軍司令部(CFA)를 1992年 7月 1日부로 解體하였고, 아울러 지금까지 聯合司令官이 겸직하고 있던 地上構成軍司令部(GCC) 司令官을 1992年 12月 1日부로 韓國側 장성으로 보임하였으며, 第25次 韓·美 安保協議會議에서 1994年 12月 1日부로 平時作戰統制權을 韓國軍에게 移讓하기로 協議하였다. 그리고 1990年 後半에 小規模 美軍만 잔류하는 狀況에서는 現在의 韓·美 聯合司令部(CFC)는 維持되기 힘들 것이며, 이는 戰爭遂行 機構가 아닌 聯合作戰 調整機構 정도로 格下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南北韓間 平

66) 上揭書, p. 33.

和協定이 締結될 境遇 유엔군司令部도 解體되어 現在의 政전관리 機能이 韓國軍에게 完全 移讓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韓·美 安保關係의 모습은 무엇보다 “相互間的 均等性이 제고된 同盟關係”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며, 韓·美 軍事協力關係는 現在의 聯合指揮體制에서 日本과 같은 獨自的 作戰體制로 轉換될 것으로 展望됨으로 韓·美 兩國은 이 같은 狀況에서 各自가 이 地域 安保에 相當한 責任을 지는 水準에서의 “共同安保”를 追求해야 할 것이며, 包括的인 東남아 安保維持를 위한 國際的 協力過程에 補助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⁶⁷⁾

한편 兩國間的 同盟關係는 韓半島의 統一에 對해서 狀況變化를 保障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보다 進向적인 役割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問題는 이와 같은 變化의 基盤으로서 現在의 狀況에 달려 있다. 變化에 앞서 그 前提條件으로서 韓國의 獨自的 防衛能力이 確保될 때까지 한반도의 平和維持는 여전히 重要한 課題이며, 이를 위해 당분간은 美國의 “對韓公約 不變”이 強調되어야 하고, 이와 아울러 變化의 方向에 對한 韓·美間的 “協議와 合議”가 보다 確實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2.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對應 方案

駐韓美軍의 改編과 部分 減縮은 世界的 平和趨勢 및 美國이 當面한 經濟 難關에 따른 國防 豫算 削減의 必要性에 비추어 오래전부터 豫測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미 이에 對備하여 南·北韓 軍事力 均衡維持를 위하여 自主 國防計劃에 의한 戰力增強을 維持하여 왔고, 南北 對話를 통한 南北 關係 改善 勞力 및 北方 外交의 展開를 통해 北韓의 變化를 誘道하여 왔다.

따라서 北韓이 駐韓美軍의 漸進的 減縮에 상응하는 措置로서 休戰線 近處에 集中 配置되어 있는 攻勢戰力을 後方으로 移動시키거나, 攻勢戰力을 減縮하는 등의 誠意 있는 反應을 보일 境遇, 우리는 美國에 의한 駐韓美軍의 減縮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方向의 部分 減縮을 韓半島 平和體制의 구축에 連繫시킴으로써 民族의 念願인 平和統一에 接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基本前提하에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몇 가지 對應方案을 다음과 같이 提

67) 崔燦榮, 前揭書, pp. 106~107.

示하고자 한다.

먼저 駐韓美軍의 將來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韓國의 基本立場을 定立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韓·美 相互防衛條約에 바탕을 둔 韓·美 保安同盟體制는 繼續發展시키되 軍事協力 關係는 狀況變化에 따라 漸進的으로 調整하며,

둘째, 南北軍事力 均衡 達成時까지 駐韓美軍을 繼續維持토록 함으로써 “戰爭抑制”와 “南北關係 改善”에 活用하고,

셋째, 美國의 漸進的 部分減縮 提議를 伸縮性있게 受容하되, 韓·美 兩國 政府의 充分한 事前協議하에서 減縮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韓·美 軍事協力 關係로서 다음과 같은 漸進的 調整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休戰管理體制로서의 유엔군司令部를 繼續 維持하고

둘째, 韓·美 聯合指揮體制는 우선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在評價 함으로써 韓·美 軍事指揮體系의 不平等을 是正하여야 하며, 平時 作戰統制權을 返還받아 平時에 는 각각 個別 司令部로 점차 發展시키되, 戰時統合運用에 對備하여 緊密한 韓·美 軍事協力體系 維持가 必要하므로 “合同參謀本部”를 創設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平時 作戰統制權 引受 問題에 따른 諸般 問題點을 事前에 分析 解決하여야 하며, 戰時 作戰統制權 引受를 위하여 合참 機能 強化로 戰爭企劃 및 作戰 能力 向上, 유엔군司令部의 尊屬 與否에 관한 法律的 考察, 危機管理 및 戰時 轉換 體制 確立, 指揮·統制·通信 및 情報 體制 確立에 관한 對策을 樹立 施行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韓·美 聯合防衛體制” 維持 期間중 “韓國 防衛의 韓國化” 體制를 確立하도록 韓·美間 緊密한 協助가 必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防衛費 分擔問題는 韓半島의 軍事力 均衡이 北韓에게 有利한 現狀況 에서는 이러한 劣勢를 補完하기 위하여 駐韓美軍의 維持가 必要하므로 韓半島 內外 安保狀況과 駐韓美軍의 規模 및 韓國 政府의 負擔能力 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韓·美 兩國의 國家利益이 一致되는 適正 水準에서 分擔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이다.

第 5 章 結 論

韓半島에서의 戰爭 可能性을 論議함에 있어서 南北韓間에 充分한 抑制力이 存在한다는 것과 軍事力 均衡이 存在한다는 것 사이에는 의미 심장한 差異가 存在한다. 즉, 抑制力은 北韓의 南侵을 斷念하게 하는 原因들의 總合이며, 軍事力 均衡이란 抑制力의 一部分이 될 수는 있지만 決定的인 部分은 아니다.

따라서 戰爭抑制의 概念에서 볼 때, 南北韓間의 軍事力 格差는 韓國의 經濟成長에 따른 國防投資費의 增大로 점차 그 格差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北韓이 採擇하고 있는 先制奇襲의 速戰速決 戰略은 이러한 軍事力 均衡이 戰爭을 抑制하기 위한 充分 條件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現實的으로 劣勢한 位置에 있는 韓國의 軍事力을 補強하여 軍事力의 均衡을 維持하고, 戰爭 抑制力을 갖추기 위해 駐韓美軍이 存在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즉, 美軍의 韓國駐屯은 北韓의 南侵으로부터 유엔과 自由友邦을 代表하여 韓國의 生存을 保護하겠다는 美國의 意志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弱小國이었던 韓國이 超強大國인 美國에게 自身의 防禦를 依存함으로써 얻은 結果는 肯定的인 影響要素와 否定的인 影響要素의 兩側面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肯定的인 側面으로서 駐韓美軍이 提供하는 戰爭 抑制力에 힘입은 平和 상태하에서 韓國은 美國과 駐韓美軍을 상대로 政治的, 經濟的 실리를 追求할 수 있었으며, 韓國의 前近代的인 社會는 駐韓美軍을 통하여 先進 產業社會인 西區文明과 보다 緊密히 接觸할 수 있었고, 韓國人은 보다 빨리 國際的 意識을 갖게 될 수 있었다.

否定的인 側面으로서 主로 過去 美軍이 韓國社會에서 갖고 있었던 독특한 位置와 地位로 인하여 韓國社會에 끼치게 되었던 否定的 結果로서, 駐韓美軍에 의한 美國 低質文化의 波及과 國家 威信의 損傷에 따른 民族感情의 問題, 그리고 北韓의 國內外的 宣傳攻勢의 對象物로서 駐韓美軍이 提供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駐韓美軍은 過去에도 重要한 存在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要素들 때문에 未來에 있어서도 韓國에 重要한 存在이다.

첫째, 駐韓美軍이 提供하는 經濟的 效果이다.

만약 駐韓美軍이 撤收한다면 韓國은 駐韓美軍이 遂行하여 왔던 많은 軍事的 役割을 單獨으로 遂行하여야만 하는 過重한 防衛負擔을 안게 될 것이며, 이로부터 야기되는 心理的, 實質的 防衛空白과 安保的 不安을 메꾸기 위하여 莫大한 軍事費가 所 要될 것이다.

둘째, 駐韓美軍은 南北韓 關係에 있어서 實質的인 신뢰조성 措置들을 誘道해 낼 수 있는 制度的 裝置로서 緊要할 수 있다.

駐韓美軍이 갖고 있는 現象維持軍의 性格은 南北韓이 과도한 軍備競爭을 하지 않고 韓半島의 平和를 維持하기 위한 共通된 認識과 意志를 갖고 있다면, 兩側이 妥當한 軍事的 諸般 신뢰조성 措置들을 制度化하기까지 韓半島의 安定維持 手段으로서 緊要하게 作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韓國이 全方位 經濟外交를 追求함에 있어서 駐韓美軍은 韓國民이 安保에 對한 不安없이 中國·러시아 등의 共產圈 國家들과 相互 交流關係를 넓혀 갈 수 있는 基盤을 提供하여 주고 있다.

南北이 分斷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고, 中國과 러시아가 北韓을 支援하는 정책을 堅持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韓國의 周邊 強大國을 상대로 실리적인 外交政策을 推進하기 위해서 駐韓美軍으로 連結되고 있는 韓·美間의 確固한 軍事同盟 關係가 韓國의 安保를 뒷받침하지 않는 한 北韓으로부터의 軍事的 威脅問題로 인하여 中國·러시아에 대한 실리정책의 追求는 보다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駐韓美軍에 의해 連結되어 있는 韓·美間 軍事同盟關係는 政治, 經濟, 社會 分野에까지 同盟關係의 波及 效果를 갖게 됨으로 韓國은 美國을 상대로 보다 많은 실리를 追求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은 韓國의 安定된 輸出市場으로서, 高級 技術獲得의 資源으로서, 그리고 韓國의 생명선인 海路의 安全을 保障해 주는 同盟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계속 重要한 國家이다.

비록 美國이 過去에 비해 그 힘이 相對的으로 弱化되기는 하였지만 美國은 앞으로 長期間 世界의 指導國 地位를 維持할 것이며, 韓國은 同盟國인 이 超強大國 美

國으로부터 많은 국익을 繼續的으로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結局 駐韓美軍의 將來는 世界的 和解 趨勢와 이에 따른 美國의 東北亞 戰略構圖 그리고 美國이 當面한 經濟 難關 打開을 위한 國防豫算 削減 趨勢와 관련하여 駐韓美軍의 任務와 部隊構造 改編은 不可避할 것이다.

비록 第24次 및 第25次 安保協議會議에서 北韓의 核開發 計劃으로 인한 不確實性이 徹底히 解消될 때까지 駐韓美軍 減縮을 留保하기로 하였으나, 英國의 정치가인 『과머스턴』의 “이 世上에는 永遠한 友邦도 없으며, 또한 永遠한 敵도 없다. 다만 永遠한 國家利益이 있을 뿐이다.”라는 名言처럼 美國 역시 美國의 國益에 따라 駐韓美軍을 減縮할 것이므로 우리의 安保를 공고히 함과 同時에 南北韓 平和體制를 實現시켜야 한다는 基本 認識下에 의연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 많은 影響을 미치는 駐韓美軍 撤收 主張은 먼저 다음과 같은 與件이 갖추어 졌을 때 共感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韓國이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成熟되고 安定된 社會로 定着되며, 北韓에 對한 充分한 軍事的 抑制力이 갖추어졌을 때,

둘째, 南北韓間에 諸般 신뢰조성 措置가 발효되었을 때 즉, 南北韓間에 불가침 協정 또는 平和 協定이 締結되고, 北韓이 軍事力 增強과 奇襲攻擊 戰略을 拋棄하며, 前進配置된 戰力을 戰爭徵候의 充分한 早期警報가 可能的 後方地域에 配置할 때, 또한 南北韓間의 軍縮協商이 妥結되고 이것이 實行될 때,

셋째, 南北韓間 諸般 政治, 經濟的 關係가 改善되고 相互 人的, 物的 交流가 可視化되었을 때이다.

結論的으로 駐韓美軍의 減縮에 따라 韓半島 安保 維持에서의 駐韓美軍의 役割이 “主導的 役割”에서 “支援者 役割”로 變更되므로, 앞으로는 “韓國防衛의 韓國化” 構想에 따라 韓·美 聯合防衛體制를 점차 韓國 主導의 戰略的 竝立 體制로 轉換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駐韓美軍 減縮에 따른 衝擊을 最少化하면서 長期的으로는 駐韓美軍의 韓半島 安保支援과 地域 均衡者 役割에 상응하는 適正 規模를 繼續 잔류하도록 함과 同時에 自主國防을 達成할 수 있는 具體的이고, 合理的인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具泳緣. 『韓國과 美國(過去·現在·未來)』. 서울 : 博英社, 1983.
- 國防部. 『國防白書(89~90)』. 서울 : 國防部, 1989.
- 國防部. 『國防白書(90~91)』. 서울 : 國防部, 1990.
- 國防部. 『國防白書(91~92)』. 서울 : 國防部, 1991.
- 國防部. 『國防白書(92~93)』. 서울 : 國防部, 1992.
- 國防部. 『國防白書(93~94)』. 서울 : 國防部, 1993.
- 董德模. 『美國 外交政策과 韓國』. 서울 : 法文社, 1990.
- 東亞日報社. 『東亞年鑑(1993年版)』. 서울 : 東亞日報社, 1993.
- 每日新聞. 1993. 11. 5.
- 스포츠 朝鮮. 1993. 10. 31.
- 安丙俊. 『強大國關係와 韓半島 安保論』. 서울 : 法文社, 1989.
- 外交安保研究院. 『中·長期 國際政勢 展望』. 外交安保研究院, 1993.
- 柳承益. “韓半島 統一에 대한 周邊 4強의 視覺 및 役割,” 『國防論集』 第19號. 韓國國防研究院, 1992.
- 尹鍾皓. “駐韓美軍의 役割變更改과 韓·日 軍事關係 : 韓國의 視覺,” 『國防研究』 第34卷 第2號.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1991.
- 李相賢. “駐韓美軍의 役割과 防衛分擔,” 碩士學位論文, 國防大學院, 1991.
- 田一平. “駐韓美軍에 關한 考察,” 『海洋戰略』 第78號. 海軍大學, 1993.
- 鄭京泳. “韓·美 軍事指揮 關係 分析,” 『軍事評論』 第290號. 陸軍大學, 1990.
- 朝鮮日報. 1993(10.9, 10.21, 11.5)
- 池萬元. “美國의 防衛費 分擔壓力에 對한 背景과 우리의 實利,” 『軍事評論』 第285號. 陸軍大學, 1990.
- 車永九. “駐韓美軍의 將來와 韓國의 安保,” 『外交』 第13號. 外交安保研究院, 1990.
- 崔燦榮. “駐韓美軍의 役割에 關한 研究,” 安保過程論集, 國防大學院, 1990.
- 韓國國防研究院. 『신데탕트와 韓國의 安保』. 韓國國防研究院, 1990.

海軍本部. 『美國의 亞·太地域 戰略 安保環境分析』. 海軍本部, 1993.

黃光男. “韓·美 軍事同盟 關係 考察,” 『軍事評論』 第301號. 陸軍大學, 1992.

黃東準. 韓南星. 李相笠. 『美國의 對韓安保支援 評價와 韓·美 防衛 協力展望』. 서울
: 民英社, 1990.